



2백80여 선후배 手談 나누며 한마음돼



지난 7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2백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동문 바둑대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3면>

관악출추

막스 웨버는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자본가들의 금욕주의적 청교도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시장 중심의 선진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은 기부문화와 자발적 봉사정신을 포함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한 몫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5월초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오프라 윈프리 등 10여 명의 세계적 갑부들이 뉴욕의 맨해튼에서 '은밀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선 활동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과 같은 억만장자들이 미국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다.

기부는 자신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기부자 자신이 자신의

기부 담당 부총장을 두자

기부 취지를 잘 살려 보람있게 사용되는 것을 원한다. 최근 서울대 발전기금의 기부 추이를 보면, 비동문이나 단체(기업)의 기부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 동문들만의 기부가 대종을 이뤘던 데 비해, 우리의 기부문화가 크게 성숙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전은기·김은희 씨 모녀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통 한옥의 문화재급 고택과 주변 토지 3만평을 기부했다. 이 모녀는 동문이 아닌데도 서울대에 기증한 이유는 조상 대대로 간수해온 고택을 잘 보존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데는 서울대가 가장 적임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부자가 기부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말해준다. 기부자 자신이 잘 운용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동문 여부를 떠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를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서울대의 발전 비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잠재적 기부자들을 찾아가 그가 원하는 '맞춤형 기부자산 운영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차제에 '기부담당 부총장'을 별도로 두 '기부금 전담 마케팅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李慶衡논설위원)

Inside

8 동문을 찾아서(李仁圭문화재위원장)

11 화제의 동문(사진기자 鄭恩鎭동문)

13 동문기업 탐방(마크로젠·한국콜마)

19 콩트 릴레이(李昌龍동문)

노리나무광장

부산의 공공기관 간부들은 해가 바뀌면 동래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한다. 충렬사에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宋象賢과 부산진 첨절제사 鄭撥 등 부산에서 순절한 선열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마치 서울 국립묘지를 참배하듯, 부산을 지켜 준 영령들에게 헌화한다.

부산에는 이런 의미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6·25(한국전쟁)때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지키다 숨진 유엔군들의 유해를 모신 유엔기념공원이다. 고국을 떠나 떠나 먼 이국 땅에 누워있는 2천3백명의 참전국 영령들은 그러나 그동안 외로웠다. 해마다 6월이나 유엔군의 날이 있는 10월에 추념행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처럼 새해에 참배를 받지 못했고,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태였다.

필자는 KBS부산총국의 간부들과 함께 올해 초 충렬사 참배 일주일 뒤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우리를 위해 숨진 데에 무슨 내외국인 구별이 필요할 것인가? 부산총국은 또한 유엔기념공원에 얹힌 갖가지 사연과 아픔을 본격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6월 25일 전후 부산과 전국으로 각각 방송했다. 말하자면 이들 영령들을 解冤해 준 것이다.

필자는 동베를린간첩사건에 얹혀 고생을 하다 한국

과 떨어진 파리의 顧庵 李應魯화백과 베를린의 尹伊桑 선생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1989년 1월 6일 KBS 1TV로 방송한 바 있는데, 방송이 나간지 나흘만에 李應魯선생이 타계해 그 방송도 顧庵 선생을 마지막으로 해원시켜드린 셈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이 飢寒 嗷—淳선생이 지적한 대로 ‘원한이 맺히고 쌓여 넘치매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는’ 시대처럼 보인다. 특하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남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맺혀있는 冤과 恨을 풀어주는 일이다. 성차별, 인종차별, 신분격차, 빈부격차, 전쟁과 폭력 등으로 몇 천 년 동안 누적된 원한을 모두 풀어야, 생명을 살리고 서로가 잘되게 하는 相生의 새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해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가까이에서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그들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풀어주려 노력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인 모교 동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冤故 解冤에서 시작해야

李 東 植

KBS부산방송총국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묘향산 가는 길

申 馨 植(화학공학73-79)

시인·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남북작가대표단 이 백 여명.

선도차 한 대, 승용차 두 대,

버스 네 대 나눠 타고 묘향산 소풍간다.

대동강이 살찌운 평양평야,

청천강 키우는 安州平野.

아우러진 산하 무심히 일도양단하는 고속도로.

경지정리가 시원스러운 들녘. 非山非野.

그 너머 펼쳐진 소나무 숲, 참나무 숲.

기와집, 초가집, 무덤이 사라진 아쉬움 빼면

내 고향 언저리와 영락없는 풍광들이 흘러간다.

落照 부서지는 청천강에 고기가 뜬다.

더위 피해 월북, 안주들판에 날개 접은 저 백로.

순백 깃털에 날이 저문다.

동문칼럼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됐던 서울대학교 법인화 논의와 관련해 2009년 6월 1일 총장의 이사장 겸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 안이 평의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필자는 위 논의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필자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권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율권이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무대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의 확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

나,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특수법인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영체제는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의 개혁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제1안에 찬성한다.

특수법인 형태 바람직

법인화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만일 총장과 이사장을 별도로 둔다면 양자간 불화나 의견 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인화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장이 법인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운영체제라고 사료된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가 완성된 이후 평가에 기초한 성과급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평가에 의한 성과급 보상이 교직원이나 교수 모두에게 공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



朱 成 民

(법학69-73)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본회 감사

서울대 법인화에 찬성한다

요하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향유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계속 유지될 것, 그리고 그 보다 더 나은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대전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율권 확보가 급선무

따라서 법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와 동문들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결집해야 하고 정부와의 조율 과정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법제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

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한 개념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또한 계속돼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초학문의 위축 문제가 또 하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서울대학교의 모든 과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기현상에 관해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 로스쿨의 등장 등 법조인이 대폭 양산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기현상은 곧 사라지리라 믿고, 아울러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大同忠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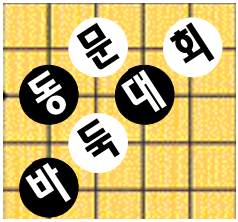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鶯 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實,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상대동창회 단체우승 개인전에 任東昱동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역대 최대인 2백8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 최강조·A조·B조·C조·D조·E조와 단체전(이하 변형스위스리그) 19개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전은 5국, 단체전은 4국을 치러 승자를 가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勳煥·朴熙伯·孔大植부회장, 모교 金夏煥대학원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姜寅求보대원동창회장을 비롯해 심판위원장인 모교 崔松和 前부총장, 특별게스트이자 심판위원인 黃焰(프로4단)·梁建(프로8단)씨, 모교 재학생 吳周星(물리07입·프로2단)군, 申秉湜·朴治文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모교 미대 章洙弘학장·바둑부 李昶煥지도교수 등이 선수로 참가했다.

이번 진행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카페의 '아바바둑사랑회'에서 맡아 접수에서부터 마지막 순위 발표까지 깔끔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바둑에서 새로운 묘수를 발견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공유하는 나쁜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후배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여러 분들의 경륜과 애교심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장학발당을 통해서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증대를 위한 특기장학금과 건립기금의 소액모금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장학발당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金夏煥대학원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이 정답게 모여 수담을 나누는 이 자리야말로 바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문 바둑대회가 선후배간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운영위원장인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요강을 낭독한 후 “일

찍이 金東鳴선생은 三樂論에서 바둑은 오락문화의 최고봉이자 살아있는 병서요, 처세훈으로써 장차 학문적으로 정립할 가치가 있다고 예언해 최근 대학에 바둑학과가 창설되기도 했다”면서 “동문들께서도 학문하는 자세로 승패를 떠나 친목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전 경기는 승자간 대결방식이 아닌 다승으로 승자를 가렸으며, 작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상대동창회팀이 향상된 실력으로 공대동창회A팀을 누르고 4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공대동창회A팀은 문리대동창회팀과 사대동창회팀을 차례로 물리쳤으나 마지막 대국에서 상대동창회팀에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우승자인 문리대동창회팀은 공대동창회A팀과 같은 3승 1패였으나 승점에서 뒤져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이날 우승한 상대동창회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 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한편 단체전 첫 대국에서 맞붙은 미대동창회팀의 章洙弘(응용미술69-76)학과와 서울대바둑부팀의 郭炯俊(약학06입)군은 40년간의 세대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바둑에 대한 답소를 나눴다. 결국 미대동창회팀은 서울대바둑부팀에게 5대 0으로 완패했으나, 미대 동문들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좋은 묘수를 알려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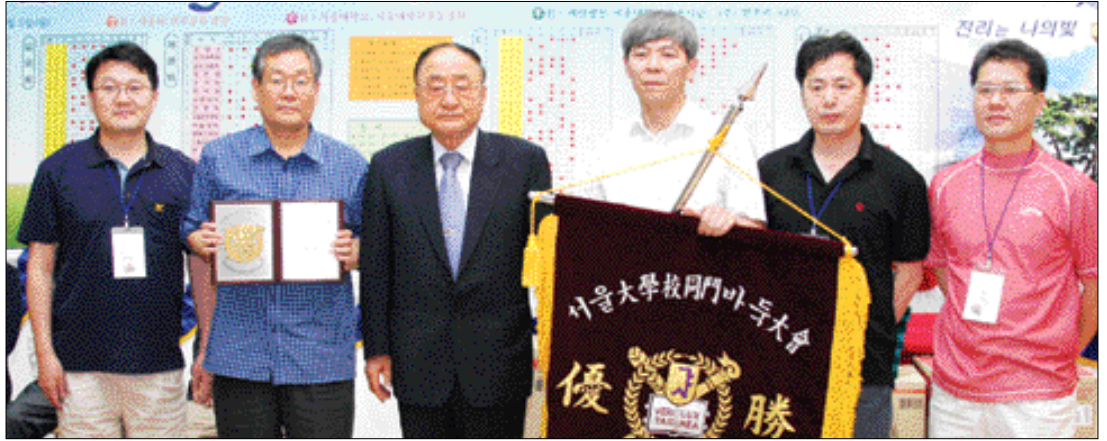
개인전 최강조에서는 3국에서 작년 대회 우승자인 高晟郁(경영78-83)동문을 물리친 任東昱(치의학66-73)동문이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高晟郁동문은 이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며, 4승 1패를 차지한 羅斗洪(사법84-88)·吳旻煥(경영06입)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최강조 우승자인 任東昱동문은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단체전 경기는 팀 승점, 상대 승점, 개인 승점 순으로 순위를 가렸으며, 개인전 경기는 정해진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아 심판위원들이 대회장을 돌아다니며 공정한 관정을 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개인전 입상자 시상식이 끝난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회장인 鄭承峴(산림과학06입)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세트와 모교 발전기금에서 준비한 홍보용 팸플릿을 받았다. 또 경품 추첨행사에서도 노트북,

바둑 묘수 한방으로 역전의 재미 ‘쏠쏠’



단체전 우승 상대동창회팀 : 좌로부터 金顯·延健昊동문, 林光洙회장, 尹同鉉·吳斗煥·金善煥동문



崔松和동문(右)이 黃焰·梁建프로기사와 지도대국을 펼쳤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최강조 任東昱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崔松和동문이 A조 楊台雨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金鳳九동문이 B조 鄭範勳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姜寅求동문이 C조 尹錫泰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申秉湜동문이 D조 李泰鉉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朴治文동문이 E조 張基文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USB메모리, 진공청소기(朴熙伯 부회장 1대 기증), 압력밥솥, 전

자레인지, 음식물건조처리기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表>

각 부문별 수상자

■ 단체전

△우승: 상대동창회팀 延健昊(상학66-70)·吳斗煥(국제경제82-89)·尹同鉉(국제경제82-89)·金顯(경제85-90)·金善煥(경제85-92)동문 △준우승: 공대동창회A팀 崔勳(토목공학63-67)·李允浩(기계공학64-71)·李康國(화학공학65-69)·李韓基(섬유공학65-72)·李昇默(토목공학66-72)동문 △공동 3위: 문리대동창회팀 朴治文(국문68-79)·申秉湜(미학73-78)·鄭載興(사회79-85)·姜瑩根(불문82-87)·安成文(정치83-87)동문, 사대동창회팀 崔安基(지리교육70-79)·李相奎(불어교육75-82)·柳忠均(수학교육82졸)·鄭源塚(지구과학교육80-84)·金鳳來(화학교육85-89)동문

■ 개인전

▲최강조 △우승: 任東昱(치의학66-73)동문 △준우승: 高晟郁(경영78-83)동문 △공동 3위: 羅斗洪(사법84-88)동문, 吳旻煥(경영06입)군 ▲A조 △우승: 楊台雨(수리과학01입)군 △준우승: 白武欽(금속공학84-88)동문 △공동 3위: 林鎔準(치의학65-72)동문, 李康云(치의학88-92)동문 ▲B조 △우승: 鄭範勳(경영76-80)동문 △준우승: 중앙도서관 張次熙사서사무원 △공동 3위: 韓載正(계산통계80-84)동문, 이근영(국사99-06)동문 ▲C조 △우승: 尹錫泰(화학교육73-77)동문 △준우승: 尹龍夏(물리84-89)동문 △공동 3위: 孫元鍾(상학58-64)동문, 朴祐成(불어교육82-86)동문 ▲D조 △우승: 李泰鉉(상학66-70)동문 △준우승: 金興萬(무역66-70)동문 △공동 3위: 朴洙煥(체육교육65-70)동문, 河泰煥(불어교육77-82)동문 ▲E조 △우승: 張基文(생물교육65-72)동문 △준우승: 李永哲(경영68-72)동문 △공동 3위: 洪性寅(행정58-64)동문, 申슬아(지구환경과학04입)양

법과대학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현창

鄭起勝·孫一根·李載厚·吳允德등문 등 4명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6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법과대학 15동에서 모교 방문 행사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正國회장은 “로스쿨로 전환돼 세계 명문대로 도약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모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악캠퍼스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며 “모교가 법대의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등 모교 지원을 위

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과대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빛나는 전통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저 안주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께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우리 모든 서울대인이 생각하고 가져야 할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국가경쟁력



자랑스러운 법대인에 선정된 李載厚·鄭起勝·孫一根·吳允德동문

향상과 세계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식에서 鄭起勝(법학49-57)前대법원 판사, 경원대 孫一根(법학

51입·본회 상임부회장)초빙교수, 김&장법률사무소 李載厚(법학58-62)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송백 吳允德(행정61-65)변호사를 선정해 축하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 행사에 이어 진행된 총회

에서 2008년도 결산승인과 2009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이뤄졌으며 임원 수와 관련된 회칙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날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 목표액 1백억원 중 현재 90여억원 정도를 모금(약정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BS 尹世榮(행정56-61)회장이 50억원, 대형 로펌에서 23억5천만원, 李喆承(법학78-82)동문이 3억원, 법대교수들이 5억원, ALP동창회가 5억원, 李泰魯·白忠鉉교수 제자들이 1억9천만원, 각 기별동창회에서 4억7천여 만원을 출원했다. 17회부터 51회까지 기별로 3~5천만원 등을 할당해 나머지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CPMP동창회

야외 음악회 열어

건설산업최고전문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6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제4회 관악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

방송인 박나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모교 국악과 출신들로 이뤄진 퓨전 국악단 ‘아리연’의 연주로 문을 연 음악회는 모교 남성 VIVA중창단, 소프라노 유성녀 씨, 메조소프라노 김수정&유엔젤 보이스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이어 柳瑩昌(토목공학73-80·3기)동문이 색소폰 연주를 들려줬으며 가수 박상민 씨가 히트곡을 부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별과정동창회 중에서 유일한게 야외음악회 행사를 열고 있는 ACPMP동창회는 현재 5기까지 3



백여 명의 회원이 배출돼 매월 건측관련 세미나와 골프모임을 열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기관장 월례회 개최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6월 16일 대전시내 한식집 삼정에서 기관장 모임인 관악회 월례회를 가졌다.

權泰鈞(경영74-78)조달청장과 金大炳(제약74-78)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환영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화학연구원 吳憲承(화학65-69)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金明壽(화학공학73-

77)원장, 대전시 秋淵坤(외교74-78)국제관계자문대사·宋錫斗(영문81-87)기획관리실장이 취임 축하패를 받았다.

부산지부 관악산우회

朴鍾振회장 선출

부산지부 관악산우회(회장 鄭文鎔)는 지난 5월 17일 경남 양산 오경농장 포장센터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경성대 朴鍾振(체육교육73-81)교수를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울산대 李秀翰(기계설계74-78)교수, 감사에 裴泳相(경영81-

85)회계사, 총무에 신라대 李在和(공업화학86-91)교수를 선임했다.

보대원동창회

3회 한마음 축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지난 5월 30일 정계산에서 제3회 한마음 봄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姜寅求회장, 모교 보대원 鄭海元원장, 鄭效志부원장을 비롯해 HPM동창회 李相昊회장, AMPFRI동창회 申一汕회장, 박사회 金南柱회장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정계산 옛골에 집결한 동문들은 두 개조로 나눠 1·2코스를 등반한 후 산하가든에 모여 음식을 즐기며 정담을 나눴다.

2007년 시작된 한마음 봄맞이 축제는 석·박사 동문들과 보대원 산하 특별과정동창회가 매년 돌아

가며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경대원동창회

宋在鎔교수 특강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5월 27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英大회장, 모교 경영대학 安泰植학장을 비롯해 60여 동문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동창회 살림을 살펴보고 모교의 발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후 모교 경영대학 宋在鎔(경영83-87)교수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략적 대응’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환대원동창회

金炯國위원장 강연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姜吉夫)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金炯國(사회60-64 모교 명예교수)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姜吉夫회장, 모교 환대원 朴鍾和원장, 환경부 李萬儀장관, 李敬在·元惠榮국회의원 등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자리에서 金炯國위원장은 ‘녹색성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학과동창회

1회 사학인 포럼

사학과동창회(회장 李濟薰)는 지난 6월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학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교 李泰鎭(사학61-65)명예교수가 연사로 초빙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동창회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 매년 두 차례의 역사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南)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7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5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9월 7일(月) 오전 10시 티오프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 031)880-0300

◆참가대상 :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진 행 : 샷건방식
◆시상내역 :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깎깎상 등 시상.
출원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예정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이순테니스회

馬景錫·曹承顯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姜信玉)는 지난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58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희조 : 우승 馬景錫(화학공학45-48)·曹承顯(법학68-72) 동문, 2위 全兢烈(토목공학45-

48)·李文炯(약학47-50)동문

▲이순 A조 : 우승 申京鐵(행정64졸)·韓仁教(의학66-72)동문, 2위 金燦祚(농화학49-54)·車載浩(심리52-56)동문, 3위 申東澈(화학교육59-63)·李慶佑(체육교육61-65)동문

▲이순 B조 : 우승 姜信玉(법학56-61)·李昌健(전기공학49-54)동문, 2위 成旭基(경제53-57)·洪明熹(법학55-59)동문, 3위 曹圭勇(경제53-57)·韓榮成(전문기상59-63)동문



간호대학동창회

1기 멘토·멘티 결연식 가져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6월 16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1기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에는 李倫京전임 회장, 李愛珠국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 李仙玉교수, 서울시의회 李금라 의원, 모교병원 金明愛간호부장, 삼성서울병원 趙明淑간호본부장 등 각계각층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궈온 30명의 동문이 멘토로 참여했다. 멘티로는 2·3학년 재학생 30명이 선발됐다.

洪京子회장은 “비록 오늘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

고, 동문들은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활기와 감동 그리고 보람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宋美順학장은 “본교 재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지만 동문 선배들의 후배 사랑이 없었다면 성취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한 없이 동문과 재학생들의 자율적인 만남으로 진행되며 매년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질 계획이다.

의과대학동창회

춘천서 첫 임원워크숍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昞)는 지난 5월 30~31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제1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朴容昞회장을 비롯해 金鍾和(의학63-69)·朴商弘(의학64-70)·金聖德(의학65-71)·朴貴媛(의학66-72)·朴相哲

(의학67-73)·朴仁淑(의학67-73)·柳寅協(의학68-74)·金喜珠(의학71-77)부회장 등 32명의 상임 임원들이 참석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임원들은 동창회 활성화 방안, 재정 확충방안, 동창회관 이용도 향상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朴容昞회장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회원들에게 재미와 실익을 주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미대 58동기회

25회 전시회 개최

미술대학 58학번 동기회(회장 鄭相元)는 지난 7월 1~7일 서울 관훈동 모로갤러리에서 제25회 ‘58-2009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조각 및 회화 작품 30여 점을 출품했다.

첫 날 개막식에 참석한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 후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술혼을 불사르며 식지

않은 창작 열기로 동문간 화목과 단합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8학번 동문들의 정성과 노력이 우리나라 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58학번 동기 20여 명을 비롯해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모교 미대 章洙弘학장, 본회 孔大植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58학번 동기회는 56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대 동기기회 중 유일하게 25회까지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鄭相元회장은 “돈독한 우정으로 우리의 아름다

사회복지학과동창회

발전기금 3억여원 기부

사회복지학과동창회(회장 姜岩求)는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학과 창설 50주년 기념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모임에는 姜岩求회장, 모교 金信福부총장, 具仁會학과장, 金聖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등 2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학과의 발전상을 보고 받고 후배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즐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기념해 스펀지그룹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 상암상사에너지 洪性寬(사회사업63-67)대표가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총 1백32명의 동문이 3억6천8백만원의 학과 발전기금으로 전달해 50주년의 의미



李賢俊·金尙均·姜岩求·金信福·崔日燮·崔聖載동문

를 더했다.

姜岩求회장은 사회복지학과 ‘50년史’ 발간사를 통해 “50년을 넘어 앞으로 60년, 1백년의 역사를 함께 채워나갈 사회복지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높은 비전과 성취를 향한 노력으로 보다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학과동창회는 지난 1964년 사회사업학과동창회로 설립돼 현재 1천5백여 명의 동문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학과동창회

동문가족 걷기대회

사회학과동창회(회장 張錫準)는 지난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동문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84학번 동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李 哲전임 회장, 모교 崔弘基명예교수, 세계평화포럼 金鎭炫이사장 등을 비롯해 동문 가족 1백6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 挺 鉉 作



‘옥잠화’, Oil on Canvas, 40.9×27.3cm, 2000.

<작 가약력>

▲58~63년 모교 회화와 졸업
▲개인전 2회
▲60년 국전 입선

▲95~96년 한국미협전
▲97년 세계를 향한 현대미술전
▲00년 모교 새천년전·서울미술협회전

▲93~09년 미대 58동문전
▲96~09년 한국의 사계전
▲현재 한국동경화가회 회장

운 만남은 이어지리라 믿고 작품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건축학과동창회

‘동문의 날’ 성황

건축학과동창회(회장 金震均)는 지난 6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운동장에서 제23회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30회 동기기회(대표 金容哲)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를 위해 愼國範(건축50-56)·全相伯(건축53-57)·金秉玄(건축56-60)·李永熙(건축57-61)·金英哲(건축59-

63)·夫大珍(건축59-63)·黃一仁(건축59-63)·金武永(건축61-65)·金武鉉(건축61-65)·卞 鎔(건축61-65)·崔寬泳(건축61-65)·金宇成(건축64-68)·金鍾國(건축65-69)·朴英健(건축65-69)·梁在鉉(건축65-69)동문 등 많은 회원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AIC동창회

발전기금 5천만원 전달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5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행정대학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李世漢회

장,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을 비롯해 3백여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창회는 이날 행정대학원 발전기금으로 李世漢회장이 출연한 2천만원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방송인 백인전 씨의 사회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푸짐한 만찬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를 위해 14기·26기 동기기회, 申炳坤(3기)·李起南(수학67-71·9기)·全東鎭(9기)·金容三(12기)·황규준(14기)·김태희(16기)·呂美貞(18기)동문 등이 컴퓨터, 메모리스트, 백화점상품권 등 푸짐함 경품을 협찬했다. <南>

의대동창회 朴容昞회장

(두산그룹 회장)

의과대학동창회는 지난 3월 37대 회장으로 朴容昞(의학62-68)모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河權益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朴容昞회장을 모시게 된 것은 의대동창회가 하늘의 가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姜信浩·李吉女·河權益회장으로 내려온 의대동창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 朴容昞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두산그룹 총수를 맡으셨는데,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동창회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전임 회장님께서 관리형 지도자답게 동창회 회무를 물 흘러가듯 체계를 잡아 주셨고 동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조직문화를 닦아 주셨기 때문에 수월한 마음으

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모교와 동창회가 동반자라는 인식아래 모교의 브랜드가치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1955년 6월에 설립돼 회원은 9천8백여 명이 됩니다. 매년 함춘대상, 함춘



천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단과대동창회 중 유일하게 회관을 건립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회비 납부율은, “원로회원 2천1백명을 제외한 7천7백명 중 3천3백명이 회비를 내 주고 계십니다. 43% 정도가

“조직이 기능하는 동창회 확립”

의학상, 張起呂 의도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친목도모를 위해 바둑대회, 테니스대회, 등산대회, 골프대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보는 격월로 6

내는 셈이죠. 기금은 7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년 임기동안 동창회 사업의 안정적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GLP동창회 李鍾大회장

(한백CNT 대표)

글로벌리더십과정(GLP)동창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한백CNT 李鍾大(16기)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국제대학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LP과정은 현재 19기까지 8백50여 명의 회원을 배출했다. 임기 2년 동안 GLP동창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李회장의 계획을 들어봤다.

－ 16기면 수료한 지 얼마 안되셨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까마득한 후배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솔직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리더로서 갖춰야할 덕목은.

“사랑, 배려, 봉사, 인정을 들 수 있겠죠. 일도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은 배려하고 도와야하고요. 그러다 보면 인정받게 되고 저 역시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국제대학원 발전기금 모금 계획”

“2002년 2월에 결성돼 1대 徐敏錫(섬유공학61-66·1기)회장, 2대 辛東烈(3기)회장이 그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매년 조찬강연회, 최고경영인상 시상, 골프·등산대회 등을 열어 동문들의 단합과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한규(13기)수석부회장, 全春金(4기)사무총장, 吳潤卿(법학64-68·1기)·趙龍植(5기)감사를 비롯해 5명의 사무처장이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 활성화 계획이리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동문들이 뭉쳐 모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일반으로 기금을 모금해 국제대학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 사이의 결속

것이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동창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952년 전남 영암 출신인 李鍾大회장은 홍익대를 나와 15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했다. 1994년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인 한백건설을 설립, 2001년 한백CNT로 사명을 변경하며 레저, IT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 낙생저수지 일대에 국내 최초로 수상골프연습장(지상3층, 96타석)을 개장했다. GLP과정 외에도 고려대, 한국체대, 서강대, 중앙대 등에서 최고위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대한민국 지속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재경 영암향우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인과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SP동창회 吳晟煥회장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지난 3월 본회 총회에서 준회원 인준을 받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은 2001년 모교 경제연구소에 개설돼 16기까지 총 5백65명의 회원이 배출된 특별과정이다. 2002년 동창회를 조직해 현재 법무법인 율촌 吳晟煥(6기)상임고문이 6대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18일 吳晟煥회장을 만나 동창회 소개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설립된 지 오래됐지만 인준을 늦게 받았는데, “과정 주임교수께서 총동창회에 가입을 하면 회원들에게 회비 등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회원이 ‘서울대 병원에서 동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건의해 온 것이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 간략하게 동창회 소개를 해주시죠. “2002년 11월 15일 설립돼 초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광장 徐廷友(법학61-65·1기)고문변호사, 2대 디에셋 金在鴻(2기)회장, 3대 한국콜마 尹東漢(3기)대표, 4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金錫源(4기)회장, 5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李在述(대학원82-86·5기)대표가 역대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매년 정책세미

나 2회, 하계해외연수, 골프·등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매기수마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부생 1명에게 등록금과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정책세미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층이 참여한 프로그램이니 만큼 학술활동을 좀더 활성화해 가능하면 분기별로 개최되길 희망합니다. 또 하나는 빈약한 홈페이지를 개선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이 과정을 들어오게 된 동기는,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게 됐어요. 과정을 통해 세계경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이 과정을 통해 배양된 안목을 토대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회원 모두가 이 시대에 가장 성공한 인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1947년 대전 출생인 吳회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조사국장, 경쟁국장, 독점국장 등을 거친 후 2005년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과 명지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과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南)

9개 분과로 나눠 국가 문화·자연유산 관리

동문록 찾아서

李仁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지난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랐다. 2007년엔 우리나라 첫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등재됐다. 국가의 위상이 격상됐음은 물론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 문화재위원회 최장수 위원이자 지난 4월 30일 자연과학 분야 출신으로 첫 위원장에 오른 李仁圭(식물학55-60 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없었더라면 어려웠을 일이다. 해양식물학자, 독도전문가, 자연보호운동가로 활약해온 李동문을 모교 관악캠퍼스 명예교수연구실에서 만났다.

대답 : 朴聖姬는설위원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그동안 줄곧 문화유산 부문, 그러니까 고미술이나 고고학 혹은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장을 맡아왔던 걸로 압니다. 자연과학 전공자로서 위원장이 되신 건 李위원장님이 처음인데 어떻게 가능하셨는지요.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합니다. 전체 위원들(80명)이 9개 분과위원장을 대상으로 투표해서 최고득점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식이죠. 이번 선거엔 65명 정도 참석했어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니 어떻게 당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연배도 제일 위고,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위원을 지낸 사람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그동안 왜 문화유산 부문에서만 위원장을 맡았었나요.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조선조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 자연히 문화유산 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文化財(cultural properties)라는 말도 실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합니다. 용어가 그렇다 보니 언젠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새를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해서 열띤 토론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해진 것이라야 문화재에 포함시키지 자연 분야는 빼버려야 한다는 도전도 계속됐어요.

그렇지만 외국에선 국제적으로 culture라는 말 대신 heritage, 즉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유산개념인 heritage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를테면 자연유산(natural heritage)과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쓰자고 여러 번 제안했죠. 지금도 문화재청의 명칭을 표기할 때는 cultural heritage로 써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는 마쳤지만 대외적인 것까지 바꾸자면 법령과 모든 기록물을 다 바꾸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진 편의상 문화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15년간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네 번 맡으면서 기본개념을 바꾸는 데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역사상 자연과학 분야에서 위원장이 된 건 제가 처음이니 그만큼 자연유산에 대

한 보편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신데,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문화재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고요.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모든 개발 행위가 중단되는데, 사유재산이 걸려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땅 주인의 고통도 심하고요.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금의 문화재청은 참 취약해요. 문화재청의 1년 예산이 4천5백여 억원인데, 보상 등에 거의 다 쓰이니 제가 맡은 분과는 연구개발 및 조사활동비로 연간 10억원도 안 나옵니다. 교수 한 명이 받는 연구비도 그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장차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보수로 심의·지정·허가활동 펼쳐

“위원회 결정사항 대통령도 못바꿔요”

— 분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분과별 회의는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

“지난 4월 6일 규정 개정으로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새로 생겼고 현재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는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어서 보통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회의실이 적어 분과마다 요일과 날짜를 정해 번갈아 사용하죠.”

— 회의는 아무래도 심의 형태겠지요.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사실은 자문기구인데 심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무용, 음악 같은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를 지정할 땐 좀 다르지만 건축이나 사적, 천연기념물분과는 심의, 지정,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 문화재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은 문화재청장도, 대통령도 바꾼 적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문화재를 훼손하면 바로 형사 입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큰 책무를 가지고 일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을 겸하고 계신데, 최근 세계유산분과에서 큰 성과를 이루셨죠.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 결과 조선왕릉 40기가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 8건, 세계자연유산 1건이 등재됐는데, 이번 성과로 문화유산은 9건이 됐죠.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국내 첫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데는 우리 분과가 주도적으로 관여했죠. 사실 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은 우리 고유의 것이니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지정될 수 있지만 자연유산

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승지로 지정되니 관광객이 늘어나 요즘엔 좋아하죠.”

—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로비를 하지 않나요.

“사실 이번에도 자기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래엔 그런 일이 적었는데 말이죠. 경쟁이 붙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보존 및 보호가 되지 않으면 훼손돼서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늘 초조하게 지내죠.”

— 국내의 경우, 신청이 들어온 뒤 지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고 자료를 준비한 뒤 많은 논의를 합니다. 현장답사를 가야 할 땐 한두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간 공고에 부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로 정식 등록이 되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걸립니다.”

— 지방에선 자기네 지역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좋아하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접한 곳에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매매가 힘들고 값도 안 오르죠. 그럴 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설득해야죠. 적당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 예산이 국가 예산의 0.2%도 안되니 힘들죠.”

—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예산을 정부예산의 1%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굉장히 애썼는데요.

“문화재청은 문광부 산하 독립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도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문화유산 부문만 국가 예산의 1%를 넘게 받고 있어요. 사실 문화재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도 몇 년 안됐어요. 이전엔 1급 청이었습니

다. 명승 분야도 전엔 담당하는 계조차 없었어요. 최근에 겨우 명승제가 생겼어요. 차관급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예우를 받으니 예산도 올라가지 않아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말은 문화가 국가의 위상이라고 하면서 예우는 그렇지 않으니... 문화재청만 해도 적어도 독립처 정도는 돼야죠. 문화재청보다는 국가유산청이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는 돼야 제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광객 늘어 지역주민 혜택”

☑ 대로 발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 현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이 큰 이슈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위원회의 일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얼마 안돼 라디오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더니 질문을 해요. ‘전공이 식물학이시죠?’ 하길래 ‘그렇다’고 했죠. MB가 4대강 개발을 통해 문화유산을 앗아려다 보니 아무 것도 모르는 자연과학자를 위원장에 앉혀놓으면 편하겠다 싶어 저를 위원장으로 시켰다는 얘기가 인터넷 등에 떠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요. ‘MB가 80명의 문화재 위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李仁圭를 위원장 시키라고 로비를 했나 보죠. 제가 투표로 뽑혔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4대강 유역에 결정적인 문화재가 있다면 당연히 고려돼야 하죠. 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 개발하는 것은 안되니까요.”

- 문화유산은 그렇다 치고요. 4대강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유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연유산도 개발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차원에서 봐야하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현재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잖아요. 거기가 연안호 군락지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분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 그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나요.

“1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훼손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거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가 클 것 같다고 판단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니 경중을 감안해 조금은 참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지 등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깨끗이 승복해야죠. 그게 기본적인 해법이고 문화재위원회의 기본 철학입니다. 조금이라도 편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되죠. 원칙을 지키면 당시엔 떠들어도 지나고 나면 잠잠해져요. 지난번 천대산 도룡뇽 때문에 국가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 독도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떤 연유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해양생물 분야와 관련이 깊어 1957년 대학생 때부터 수십 번 드나들었고, 스쿠버 다이빙으로 생태조사도 많이 했죠. 현재는 독도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역시 우리 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회 세미나에서 동독도와 서독도 사이에 다리를 놓아 그 위에 호텔을 짓자는 말이 나왔는데, 실은 과도 때문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 한 달밖에 안돼요. 지반이 약해 훼손되거나 낙반 사고 가능성도 크고요. 우리 국토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항의가 하도 많아 할 수 없이 접안시설을 만들어 거기에서만 왔다갔다하게 해놨습니다.”

- 해양식물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참 생소한 학문이었을 것 같은데.

“은사인 李敏載교수께서 북해도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해조분류학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셨어요. 전공은 식물생리학인데 분류학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줄



해양식물학으로 논문 2백50편 발표

학장시절 학부제·교수평가제 도입

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선배 둘이 맡았는데 전공이 달라져 저에게 미션이 떨어졌죠. 해양생물 중에서도 해양식물학, 쉽게 말해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 분류 연구를 해왔죠.”

- 분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이 보고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국내 연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채집했죠. 제가 만든 신종도 제법 돼요.”

- 대표적인 식물을 소개해주신다면.

“제주분홍풀이라고 유명해요. 붉은색 홍조류인데, 우뚝가사리와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1cm 정도로 아주 예뻐요. 제주도 성산포 일출봉 바로 아래서 채집해 길러봤더니 新屬이었어요. 신속이라는 건 새로운 족보 혹은 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얼마 후 플로리다

에서 같은 속에 들어가는 종이 두 개나 발견됐다고 보고돼 깜짝 놀랐죠.”

- 요즘 해조류가 식량자원과 에너지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녹색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조류가 각광받고 있죠. 최고급 종이도 해조류에서 뽑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해조류를 대량 양식하는 곳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몇 나라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우리가 쿼터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즐겁게 연구했지만 식물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마이너리티로 살았습니다. (웃음) 기독교인이어서 운명적인 게 컸다고 봅니다. 진화론을 공부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박사학위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해조류 분류학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분류학이라는 게 단순히 종을 분류하고 새로운 종에 이름을 짓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종의 분화, 뒤집어 생각하면 진화에 관한 영역까지 넘나들기 때문에 젊은 시절 서원했던 것을 결국 하고 있습니다. 인기학문은 아니었지만

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학부제라는 게 퍼지게 됐어요.

또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장을 겸하고 있을 때, 연구비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과학재단 등에서 영 주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은 교수가 연구비를 받으면 다른 데 사용한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GNP가 10위권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학문적인 자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던 중 어느 교수의 SCI 논문이 40 위권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여줬더니 연구비를 줘요. 그 다음부터 교수연구를 SCI 논문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국내 저널들이 채택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도 욕먹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웃음)”

- 약주는 어느 정도 하세요. 취미는요.

“전혀 안마시진 않지만 많이는 안 합니다. 바둑을 잘 뒹요. 아마 3단 정도. 서울대 교수 바둑동호회가 있는데 별세하신 정치학과 金榮國명예교수, 李壽成 前총리, 崔松和 前부총장 등이 멤버였죠. 단과대학 별 시합도 하고 그랬어요.”

- 자녀 가운데 동문이 있으신지요.

“큰아들(商敦 임학79-83)은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고, 큰딸(希媛 대학원89졸)은 모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商勳)은 신학을 전공한 뒤 사업을 하고 있고요.”

- 서울대 교수로서 학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었던 배경이랄까,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숨은 비법이라도.

“글쎄요. 저를 만나보시면 목에 별로 힘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행정을 맡는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학문만 한다는 생각에 논문만 2백50편 정도 썼죠. 그러던 중 50대의 늦은 나이에 교무부학장으로 임명돼 꼼짝없이 하게 됐죠. 그런 다음 연구소장과 학장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레 문화재위원회 일도 하게 됐고요.”

- 대학신문에 보니 서울대생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실렸더군요. 제자들이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면.

“자연과학을 공부했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철학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철학은 인간이 사유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역사는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런데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쫓대가 없다 고나 할까요, 방향을 못 잡아요. 자연과학을 하든 인문과학을 하든 기초학문을 충분히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건 ‘공부하라’는 겁니다. 고시를 하든 박사학위를 하든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려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 틈날 때마다 자기 계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 열정 없이는 안되죠. 열정이 소멸감으로 이어지면 누구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 맡겨져도 잘하리라 믿어요.”

(사진=李五峰=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세계 보도사진계에 떠오른 熱血여성

鄭恩鎭(동양화89-93)동문을 ‘화제의 동문’ 코너에 올린 건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쉽고 안정된 일을 내던지고 사진을 낚아들며 쏟는 열정과 비교적 젊은 동문들의 시선을 동창회보로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이 어우러져서이다.

지난 6월 19일 낮 분당 수내역 인근 조명이 잘 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한 뒤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군더더기 없는 표현과 긴가민가 하는 대목은 여지없이 생략하곤 했다. 한마디로 프로근성으로 푹푹 묻혀있었다. 바로 이런 식이다.

－ 주로 어디어디 취재 다녀요.

“지금 녹음 시작하는 건가요? 인터뷰 할 때만 했으면 좋겠는데.”

－ 왜 기명을 썼나요? (그는 얼마 전까지 ‘김주선’이란 이름으로 통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는 되물어왔다. “인터뷰 전에 제 책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는 지난해 수필집 ‘카불의 사진사’와 르포집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를 펴내 많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카불의 사진사’는 산모 사망률 2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한 20대 여성의 출산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포

토스토리 형식으로 엮은 것이고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는 콩고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다룬 책이다.

‘뉴욕타임즈’ 1면 톱 사진 올려

鄭동문은 미주 한국일보 뉴욕지사와 LA 타임즈 기자 및 인턴을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9월 페르 피낭 페스티벌에서 6개 주요 상 중 하나인 ‘케어 인터내셔널 휴머니티 르포르타주’ 그랑프리, 2008년 3월 제4회 Days Japan 보도사진대상 1위, 2008년 11월에는 세계 보건기구의 결핵퇴치를 위한 이미지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촬영한 사진은 ‘뉴욕타임즈’ 1면 톱으로 실리기도 했다. 동양인으로 드물게 세계 사진기자 무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동양화과에 다니며 ‘놀기만 하던’ 미대생의 인생을 사진 학사(뉴욕대), 포토 저널리즘 석사(미주리대) 전공으로 이끌었을까?

“대학 3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사진 수업을 들었어요. 중앙대 柳京善교수님이 강사



로 가르쳤는데, 점수를 잘 주셔서 2학기에도 들었죠.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사진이 좋아서 뉴욕대로 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때가 1993년, 풀타임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04년, 올해로 6년째다.

그는 9·11사태가 발생하고 몇 달 뒤 2002년 봄 중동문제 근원지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구를 찾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보지 않고서는 기자로서 국제뉴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鄭동문에게 9·11사태는 저널리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당시 뉴욕에 있지는 않았지만, 미주리 대학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9·11사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한 포토저널리즘의 관도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때부터 디지털화가 됐고, 대테러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미국내에서 이슬람문화를 알리는 노력이 높아졌죠. 9·11사태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 역시 이슬람 세계를 비롯해 제3세계 문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는 지난 5월 이화여대에서 가졌던 여성인권 관련 강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왜 그랬을까?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를 다니면서 제3세계 여성인권 문제를 많이

취재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1년 살고, 콩고에도 3개월 있었는데,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이 우리나라 1백년 전과 비슷해요. 이슬람 세계나 제3세계 여성들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鄭동문은 기회가 되면 모교에서도 꼭 강연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사진기자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었다.

“저널리스트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죠. 약자 입장에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진기자의 경우 시각적으로 감동을 줘야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시대정신을 담는 것 못지 않게 예술적으로 시각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토리텔링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기회 되면 모교서 강연하고파”

그는 우리 나이로 올해 마흔. 프리랜서 대신 유력매체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

“있어요.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의 경우 일단 사진기자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사진 지면을 많이 내주거든요. 기자 개개인을 키워주는 시스템이죠. 또 뉴욕타임즈 같이 영향력이 큰 매체와 일하면 제 사진을 더 많이 봐 줄 테니 보람도 더 느끼게 될 것이지요.”

그는 현장이 사진기자의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사진기자들은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콩고에서도 장기체류를 했던 겁니다.”

1년 중에 한국 체류기간은 3분의 1 정도다. 사진기자 鄭恩鎭의 다음 취재지는 스리랑카. 전쟁고아들을 취재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보 李相起는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007년 5월 아프가니스탄 바닥산주에서 취재를 마치고 현지 경찰들과 함께.

찌는 듯한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월 25일 서울 가산동 (주)마크로젠의 임원실에서 모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아시아게놈센터 소장, 한국바이오헬스 초대회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徐廷瑄(의학70-76)회장을 만났다.

마이크로젠은 모교 의대 유전자이식연구소
를 모태로 지난 1997년 6월에 설립된 후
2000년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최초로 코스
닥에 등록한 국내 제1세대 바이오기업이다.

알타이계 유전체 최초 해독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크로젠이 탄생했죠. 6월 18일 개소한 모교 아시안계농센터만 해도 마크로젠의 투자나 기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기업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시작한 마크로젠은 국내외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계층사업본부와 오믹스사업본부(모델동물, 렌티바이러스 제작·서비스), 미래진단사업본부(개인별 맞춤 유전질환 진단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명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분석이 완료됐고 거기에 북방계 확인

은 우리 연구팀이 처음으로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유전자 분석과는 달리 가장 정확하게 연구해 발표를 했죠.”

미국과 영국 등의 국제컨소시엄이 중심이 돼 최초 인간 게놈 분석에 성공한 1차 게놈혁명에 이어 2차 게놈혁명은 인종별 개인 게놈 분석 연구



지난 6월 18일 개소한 아시안게놈센터 연구원들

맞춤의학시대의 바이오시장 개척

에 초점을 맞춰 현재 진행 중에 있다.徐동문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한국인 30대 남자 1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완료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로서 알타이계 아시아 유전체 서열을 최초로 해독한 것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아시안게놈센터에서는 서열분석 장비를 마련해 한 해에 50명의 유전자 지도 초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것은 2차 혁명에 큰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또 전문적이고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하버드 의대 등과 함께 이미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센터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체계 및 아시아 각 국과 공유하고 있는 전통의학,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강력한 IT 인프라 등 다른 나라와의 게놈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맞춤의학시대에 우리나라가 바이오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

(주) 마크로젠



徐廷瑄회장

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만큼 온 인류를 위한 작업이고 이것이 마크로젠이나 아시안게놈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마크로젠은 인간 유전자에 대한 지식과
기술개발로 각종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무병장수의 삶을 지향한다.

“바이오기업은 수익 창출 극대화에 목표
를 두면 안돼요. 그래서 마크로젠은 근보회
(근디스트로피 환우 보호자회) 활동 및 신
진과학자 상 시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

한국콜마(주)



尹東漢대표

한국콜마(주)(대표 尹東漢 AFP 2기·ASP 3기)는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콜마그룹(Kolmar Group) 중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지난 1990년 5월 설립된 화장품 및 의약품전문 연구개발·제조기업이다. 尹東漢대표는 전문화된 화장품 OEM을 한국시장에 정착시키고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자 자체개발 주문생산)'이라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산업의 전문화를 이루는 데 선구자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위치한 피부과학연구소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 선도기업

적 역할을 했다.

“저는 꿈을 위해 1970년대 최고 직장이던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국내경제 호황과 빠른 승진은 저에게 결단을 재촉하게 했죠. 결국 1990년 창업이라는 주시위를 던졌고, 3년간 인생의 운명을 걸다시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제 앞에는 든든한 한국콜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ODM시스템 국내 첫 도입

불혹이 넘은 나이에 화장품사업을 시작한
 윤대표는 진입장벽이 높고 자금도 풍족치
 않은 상황에서 전문 OEM업체로 성공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일본콜마
 와의 합작을 결심했다. 그러나 90년대 초에
 는 단순 하청 및 임가공 형태의 OEM산업
 이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화장품시
 장에 연구개발시스템을 도입, 업계를 기술
 지향적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기획, 개발에서 완제품 품질관리,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국콜마의 ODM시스템은 완제품에 자체 브랜드 없이 제조원만으로 표기되지만, 한국콜마의 R&D 브랜드 파워는 업계에서 기술력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피부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와 식품
연구소(계열사 선바이오텍)를 갖춘 한국콜
마는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적용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시스템을 만들어 화장품업
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
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산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尹대표는
대통령표창 수상, 화장품업계 최초로 과학
기술유공 혁신장을 받기도 했다.

연간 국내외 1백60여 화장품사와 1백여 개 제약회사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콜마는 지난 3월 결산법인에서 전년도 사상 최고치인 1천5백35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액 1천5백억원 돌파

그동안 한국콜마는 세계 최초로 나노복합
캡슐과 다중멀티캡슐 개발, 제약업계 상위

관에 속하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화장품 유휴기술을 결합시킨 퓨전테크놀로지, 결정체인 고합수 아토피연구와 개발 등 화장품 및 제약 분야에서의 신기술과 장점을 집목한 성과를 거뒀다. 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천연신소재 생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콜미의 도약과 성장에는尹대표의 ‘유기농 경영’이라는 독특한 경영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환경에 맞게 자생력을 높이고, 창조적 사고, 합리적 방법, 적극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보람의 일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가야만이 직원들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독서경영, 전사적인 문화로 뿌리내린 사회봉사활동, 뚜벅이 캠페인 등은 한국콜마의 아름답고 건 강한 기반을 다져 온 근간이라 할 수 있다.

尹대표는 “올해에도 화장품 생산공장 4곳과 연구소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제약부문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건산업 분야에서 1백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表〉

롯데국제교육관 개관 관악캠퍼스 내 ‘글로벌 존’ 형성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6월 23일 관악캠퍼스 대외협력본부(152동) 부근에서 롯데국제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롯데장학재단 盧信永이사장 등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및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모교 국제화

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이 70억원을 출연해 완공됐다.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외국인 학생이 배증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관 개관이 글로벌 서울대학교의 미래 지향적 캠퍼스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盧信永이사장은 축사에서 “롯데 국제교육관 건립은 재단의 25년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며 “전 세계 석학과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국제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林光洙회장은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면서 특히 국제화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교

육관이 국제화를 이루는 데 허브 역할을 해 훌륭한 연구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한 롯데국제 교육관은 1년 여 기간의 공사를 거쳐 지상 6층, 연면적 5,211㎡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는 World Class University추진사업 사무실, 외국인 교수 연구실과 아시아 연구소 등이 입주하며 주변의 대외협력본부(CJ 인터내셔널 센터), 언어교육원 등과 더불어 관악캠퍼스 내 ‘글로벌 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EO 배출능력 세계 5위 프랑스 에콜데민대 평가

모교는 최근 프랑스 에콜데민대가 실시한 2009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배출능력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백대 기업’ CEO들의 출신 대학을 분석해 점수를 매긴다.

모교는 현대중공업 閔季植(조선항공공학61-65)부회장, 포스코 李龜澤(금속공학64-69)상임고문, 삼성전자 李潤雨(전자공학65-69)부회장, 현대중공업 崔吉善(조선공학65-69)사장, SK 朴永浩(상학67-71)사장, GS홀딩스 徐京錫(행정67-71)부회장, 삼성생명 李水彰(수의학67-71)사장, 朴炳元(법학71-75)前우리금융지주 회장, 南重秀(경영75-79)前KT 사장 등 9명의 CEO를 배출해

6.17점을 얻었다.

국내 대학에서는 성균관대가 1.25점, 한양대와 연세대가 각각 1점, 고려대가 0.92점을 받았다. CEO가 가장 많은 대학은 일본 도쿄대로 18명을 배출해 17점을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16.92점) △미국 스탠퍼드대(8.33점) △일본 와세다대(7점) 등의 순이었다.

이번 평가 대상이 된 한국 대학들의 점수 합계는 10.33점으로 △미국(172.50점) △일본(53.50점) △프랑스(41.08점) △영국(28점)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올랐다.

모교는 3년 전부터 시작한 이 평가에서 2007년 32위, 2008년 16위에 이어 올해에는 순위가 11단계 상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金左根선생 후손이 기증한 고택

모교 발전기금은 최근 전은기·김은희 모녀로부터 경기도 이천 소재의 고택과 주변의 3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받았다. 이곳은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荷屋 金左根(1797~1869)선생의 고택으로, 경기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6월 10일 고택을 방문한 李長茂총장은 “소중한 문화재를 기부받은 만큼 건축학과 田鳳熙교수가 직접 고택 복원공사를 맡아 잘 되실 것”이라며 “주변 땅은 원예학과 교수들과 상의해 약초 재배와 원예 등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수협의회장에 법대 胡文赫교수



모교 교수협의회(회장 金安重)는 지난 6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법학부 胡文赫(법학68-72)교수(사진)를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胡회장은 1985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남대 교수를 거쳐 1986년 모교에 부임해 평의원회 부의장, 대학신문 주간, 법과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미술관

KAFA 수상작가 11인전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미미술재단(KAFA)과 공동으로 ‘미국 속의 한국작가 11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망 한인 작가에게 주어지는 역대 KAFA미술상 수상작가 11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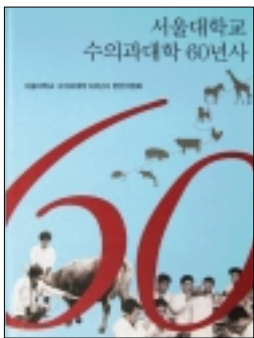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7월 31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수상자는 매년 개교기념일(10월 15일) 전에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발표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격려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2, 팩스: 889-74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榮)

수의과대학

‘60년사’ 발간 배포



수의과대학(학장 權五鏡)은 최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60년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60년간 학과, 학부, 대학으로 발전되기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정리 방식은 시대별 편년체를 택했으며 사진으로 보는 수의과대학 60년, 변천사, 교실사, 동창회,

학장회고록, 동문회고록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李興植(수의학61-65)편찬위원장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이 책이 수의학 역사의 1백년, 1천년을 준비하는 지표로 큰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년사’를 원하는 동문은 수의대동창회로 문의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880-1230〉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첫 ‘아이디어 발표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 崔陽熙)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수원 광고 테크노밸리에서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융대원의 학과 공통 전공 필수과목인 ‘융합과학

기술개론’(담당교수 姜南俊)을 수강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32명과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소속 박사급 전문연구원 10여 명이 함께 팀을 이뤄 1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하나의 조를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u헬스, 지능형 로봇, 재난 관리 등 8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융합기술을 소개해 각 학과를 대표하는 첨단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姜南俊교수는 “이번 발표회는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해 팀워크를 이뤘다”며 “창의성과 구현 가능성을 겸비한 몇 개조의 아이디어들은 대형 프로젝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식물병원 개원 10주년 국내 첫 ‘병해충 도감’

모교 농생대 식물병원(원장 金永鎬)은 지난 6월 16일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경수 병해충 도감’을 출간했다.

농생대 교수 3명의 연구성과가 담긴 이 도감은 우리나라 수목의 대표적 병해충 2백73종이 총 6백여 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전염성 병원균 관련 집필은 羅鎔俊(농생물53-57)명예교수, 해충은 禹建錫(농생물55-59)명예교수, 생리적 피해 부분은 李景俊(임학63-71)교수가 맡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수목 도감은 모두 4종이지만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출판한 비매품이거나 내용이 미흡해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약초원서 동창회 임원초청 간담회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지원키로”

모교 李長茂총장이 지난 6월 22일 총동창회 임원 및 관악언론인회 간부를 초청해 경기도 일산 약초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초원 연혁과 현황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한 후 약용수목, 덩굴·수생식물 등 약초 재배지를 둘러봤다.

朱鍾南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李長茂총장은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인재를 키우는 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보직교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모교의 운명이 걸린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보와 재정 마련을 위해 동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관악언론인회 文昌克회장은 “모교가 이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는 데 동문 선배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BS 尹世榮회장의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사에 이어 모교 金信福부총장이 현재 추진 중인 모교 법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초원 金榮中(약학64-68)원장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들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田鳳熙교수와 제자들 한옥 ‘何有齋’ 집들이



공과대학 건축학과 田鳳熙(건축 81-85)교수와 재학생들이 ‘한옥 짓기(한국건축사연구방법론)’수업을 통해 관악캠퍼스 공대 폭포 옆에 두칸짜리 한옥 ‘何有齋’(사진)를 완공하고 지난 6월 13일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실습지도를 담당한 장인들과 함께 작업한 재학생들을 비롯해 교내외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했다.

지난 2008년부터 두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한 田鳳熙교수는 “한옥의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주거 형태의 다양한 가능성을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덕궁 편우사(효명세자가 독서하던 곳)를 모델로 궁궐 건축의 정통 기법을 충실하게 따른 ‘하유재’는 공대 폭포 근처의 자연과 조화를 이뤄 학교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유재’ 당호는 莊子の ‘無何有之鄉’에서 따온 것으로 철학과 許南進(철학75-79)교수가 지었다.

산업공학과

1회 ‘李重翰賞’ 시상

공과대학 산업공학과(학과장 洪誠弼)는 지난 6월 15일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재학생, 교수 및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산공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李重翰賞’ semi-finalist 발표, 씨클원 尹昶善(산업공학78-82)사장 특강, ‘李重翰賞’ 시상,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李重翰賞’ semi-finalist로 구희원(4년)·양지원(4년)·안택근(3년)학생이 선발돼 ‘산업공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양지원 학생이 제1회 ‘李重翰賞’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장학금을 받았다.

이 상은 무선인터넷업계 1세대로 활약하다 고인이 된 李重翰(산업공학83-87)동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李동문의 유족은 생전에 산업공학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벌이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지난해 말 모교 발전기금에 3억원을 기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李炳龍(산업공학71-75)·金炳斗(산업공학73-77)·嚴柱泰(산업공학76-80)·金澈(산업공학80-84)·崔容銑(산업공학82-86)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榮)



‘새싹멘토링’ 멘토·멘티에게

코엑스 무료공연 관람 지원

최근 모교 발전기금과 미래국제재단(이사장 金鮮東)이 추진하고 있는 ‘새싹멘토링 장학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코엑스(대표 裴秉官 GLP 16기)가 매월 무료공연 관람 혜택을 주고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새싹멘토링’ 사업은 모교 재학생들이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교 학생들을 위해 멘토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다.

지난 5~6월 동안 멘토인 재학생들과 멘티인 학생들은 ‘늘근 도둑 이야기’, ‘형제는 용감했다’

(사진) 등 코엑스에서 공연 중인 인기 작품을 관람했다.

발전기금과 코엑스는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향후 공연의 무료관람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진원(산림환경학05입)군은 공연 관람 후 “멘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주셔서 좋은 공연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콩트 릴레이

落葉선생 회상기

李 昌 龍
(국어교육52-56)
수필가



3월은 二分法으로 풀 수 없는 계절이다. 아직도 찬 기운이 옷깃에 숨어들고 양상한 나뭇가지에는 새 눈이 보이지 않는다. 겨울을 쫓아낼 봄은 먼 산허리에 얹은 안개를 보일 뿐 멈춰버렸다. 두 계절은 당분간 공존하고 있다가 봄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겨울은 서서히 꼬리를 감춰버릴 것이다.

이런 시기에 나는 서울 도심지에서 조금 빙겨 서 있는 S여고의 신입 교원 임명식에 참가했다.

일요일 아침 7시였다. 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직 자고 있니? 오늘 3시에 거기서 만나자. 이력서와 사진을 가지고 나오너라.”

결국 이 이력서가 신입 교사의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거기라는 곳은 종로에 있던

든다. 나는 즉석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구르몽(Rémy de Gourmont, 1858~1915)의 ‘낙엽’이란 시를 생각해냈다.

‘시몬, 나뭇잎 떨어진 숲 속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좁은 길을 덮었다
시몬, 너는 낙엽 밟는 발소리가 좋으나
...’

이 시는 우리나라의 근대시인 金 億과 金素月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한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에게 낙엽이란 이름 하나를 지어줬다. 2주 후에는 전교생에게 알려졌고, 그 후부터는 내 이름을 몰라도 낙엽선생으로 통하게 됐다.

그 무렵 고등학교에는 특별활동반이란 것이 있어서 여러 반을 조직해 지도교사

히 해 보자고 권유했다. 그 친절에 힘입어 언제나 촬영에 동행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조화롭게 융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아침 바다의 해돋이를 찍을 때는 바다 위에 갈매기나 고깃배가 지나가는 것을 넣어야 하고, 중심 피사체는 가운데 배치하면 너무 정직한 구도가 돼 긴장감만 있고 여유나 멋이 없다. 인물 사진도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안 된다. 얼굴이 평면적이 되니 15도나 30도 정도 돌린 위치에서 잡아야 입체적이고 지성적인 표정이 된다. 이렇게 사진 촬영에 대한 기초지식 공부를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작품활동에 동참하게 됐다.

봄과 가을에 동호회원 전시회가 있어서 한 사람이 3점씩 출품하게 돼 있었다. 사진이란 본래 셔터만 누르면 되지만 예술작품의 경우는 백 장에 한 두 장이 나오기도 힘들다. 예술적 안목과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전시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만족할만한 작품이 아직 없다. 일요일마다 교외로 나가 피사체를 구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천 근처에 있는 주안에 다다랐을 때 기하학의 도형 같은 염전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탄 순경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의 신고가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가야 하겠습니까.”

과출소에 도착하자 몸 수색부터 시작했다. 심지어 신발 깔창 밑까지 열어보고 나서 다시 심문이 시작됐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

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 시설을 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시회에 출품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오.”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다.”

“전화번호를 불러 주십시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교사만 학교에 있었다.

“S여고입니까? K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은 전화를 내려놓고 껌껌대고 웃다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만 했다. 인상착의를 물었을 때 전화 받는 사람이 대머리라고 대답했던 모양이다. 평소에 고민거리가 됐던 대머리가 나의 신분증명서의 구실을 분명하게 해줬다는 것은 분명 나만의 고유 권한이다. 덕분에 나는 무죄로 석방됐다.

전시회 날은 가까워 오는데 작품이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창경궁에 갔다. 그때는

궁 안에 동물원이 있었다. 두루미 무리를 발견하고 ‘이거다’하고 초점을 맞추려 하나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원하는 구도대로 되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나서야 세 마리 두루미가 하나의 다리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역광으로 재빨리 셔터를 눌렀다. 소한 날 추위에 손발이 동상에 걸렸다. 작품이란 작가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다. ‘후식’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했다. 뜻밖에도 ‘월간사진화보’에 크게 소개됐다. 그 후 이 화보의 사진을 보고 중학교 문법 교과서에 삽화로 실은 것을 발견했다. 작가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모두 제멋대로였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니 나에게도 변화가 왔다. K대학으로 직장을 옮겼다. 대학생들은 교수의 별명을 짓거나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낙엽선생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본래의 내 이름으로 살게 됐다.

사진 동호회의 가을 전시회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출품작품이 없어서 마음이 초조할 무렵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자 모델을 구했으니 오는 일요일에 촬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날 버스를 타고 한탄강 유원지로 갔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10분 정도 촬영하다가 회장은 모델에게 누드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설득은 계속됐다.

“여자는 남편 앞에서, 다음은 의사, 그리고 화가와 사진 작가 앞에서 옷을 벗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모델은 마지못해 머리를 끄덕였다. 앵글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순경이 나타났다.

“풍기 문란죄로 과출소를 가야 하겠습니까.”

과출소 안에서는 열렬한 토론이 전개됐다.

“성행위가 아니고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됩니까?”

우리는 거세게 항의했다.

“대낮에 옷을 벗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이 됩니다.”

“숲 속에 숨어서 촬영했는데 마을 사람이 봤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까?”

밤 10시가 돼 상부 관서에 전화를 걸더니 시말서를 쓰게 하고 우리를 풀어줬다. 통행금지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가 없었다.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아 타고 12시에 서울에 왔다.

사진 촬영 때문에 곤욕을 치른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고발정신에 있었다. 관청에 협조하려는 정신은 좋으나 과도하면 시민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전시회 날짜에 쫓기면서 덕수궁을 찾았다. 그때는 중앙박물관이 여기 있었다. 석조전에 들어가자 거대한 불상이 앞을 막았다. 너무 근거리여서 앵글 속에는 반신만 들어왔다. 2층에 올라가서 렌즈로 내려다보니 너무 단순해서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천재일우로 하얀 소복을 한 여인이 시주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금상첨화격으로 부처님 머리에 햇빛마저 비쳐서 ‘瑞光’이란 제목을 달아 출품했다. 사진 기자들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해 ‘동아일보’에 실린 영광을 얻었다.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나뭇잎마다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낙엽선생 나무에는 올해도 새 잎이 보이지 않았다.

“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별명이란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 눌러주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데 대머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

‘르네상스’란 고전 음악 감상실이다. 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라고 표현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명동에 ‘돌체’라는 감상실도 있었으나 거기는 순수성이 적어서 선호의 대상이 못됐다. ‘르네상스’는 주인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명곡판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듣기로 결심하고 감상실을 열었다고 한다.

S여고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학생들이 내 별명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 시간에 반장에게 물었다.

“반장, 내 별명이 무엇이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장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 봐.”

“낙엽입니다.”

“나와 낙엽이 무슨 상관이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별명이란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 눌러주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데 대머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오히려 시적 이미지를 간직한 시어 같은 느낌마저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 동문

를 배치했다. 나는 웅변반을 맡아서 희망 학생의 지원을 받았더니 10여 명이 찾아왔다.

그 해 가을에 K대학에서 전국 고등학생 웅변대회가 있어서 소질 있는 학생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대회에 첫 출전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전교생 조회가 있던 날 교장선생께 우승컵을 헌납했다. 교장선생의 찬사가 있었다.

“낙엽선생이 지도한 웅변반 학생들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해 학교의 이름을 드높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교장선생마저 낙엽선생이라고 부르니 어찌된 일인가. 평소애 근엄한 그 분이 오늘은 기쁜 날이어서 학생들을 한 번 웃겨 보려는 심산이 깔려 있었다.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생각을 30년 전으로 돌리니 잊지 못할 수난사건 두 건이 떠올랐다. 내가 살던 이웃에 사진 작가인 동향인이 살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사진 작품활동을 같이 하자고 이끄는 것이었다. 몇 달 후에 자기가 쓰던 ‘라이카’라는 독일제 카메라를 주면서 열심히

동 정

수 상

▲李成美(회화58-62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지난 6월 24일 서울 반포동 예술원에서 한국미술저작상 수상.

▲朴英惠(불문61-65 숙명여대 명예교수)=지난 6월 9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柳岸津(교육학61-65 모교 소비자동학부 명예교수·시인)=지난 6월 13일 시집 '거짓말로 참말하기'로 제4회 이형기문학상 수상.

▲金基炳(행대원67졸 롯데관광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행대원동창회장)=지난 6월 4일 2009년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서울관광 인바운드 여행사'상 수상.

▲閔東必(물리64-71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지난 6월 3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權暎壽(경영75-79 LG디스플레이 사장)=지난 7월 8일 제27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과학기술연구부문) 수상.

▲方 仁(철학75-80 경북대 교수)=지난 6월 12일 曙宇 崔載喜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1회 서우철학상(번역부문) 수상.

▲尹永錫(조소77-84 경원대 교수)=지난 6월 24일 김세중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3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李 根(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7월 8일 제27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宋致榮(무역81-85 국민대 교수)=지난 6월 23일 NEAR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니어학술상(금융통화부문) 수상.

▲金泰裕(의학82-86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5일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8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지난 6월 5일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金勝猷(AMP 19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지난 6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어워드(국제 비즈니스리더십부문) 수상.

▲都東煥(AMP 26기 민족문화영상협회장)=지난 6월 13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 합천군 수로부터 감사패 수상.

▲유인목(AIP 32기 테크노빌리지

대표)=지난 6월 17일 사단법인 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제3회 퍼터 드러커 혁신상(중소기업부문) 수상.

▲姜普英(HPM 1기 안동병원 이사장)=지난 6월 22일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姜德壽(GLP 8기 STX그룹 회장)=지난 7월 7일 서울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8회 다산경영상 수상.

▲梁基海(GLP 14기 세기종합환경 대표)=지난 5월 19일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

▲朴贊謨(화학공학54-58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지난 6월 26일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

▲玄昭煥(정치57-61 前연합뉴스 사장)=지난 6월 9일 임기 4년의 국제언론인협회(IPI) 이사에 선임.

▲文明浩(영문59-64 前동아일보 논설위원·대한언론인회 부회장)=최근 시민단체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선임.

▲南宗鉉(광산학67졸 前고려대 정책대학원장·고려대 명예교수)=지난 6월 1일 세계경제연구원장에 취임.

▲諸葛政雄(상학65-72 대림학원 이사장·한국M&A협회장)=지난 6월 19일 임기 4년의 대림대학 제6대 총장에 취임.

▲梁 建(행정66-70 국민권익위원장)=지난 6월 9~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회 세계음부즈맨협회(IOI)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

▲李順子(미학67-71 경주대 교수·경흥학원 이사장)=지난 6월 15일 경주대 총장에 취임.

▲卞相慶(해양68-72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6월 23일 유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에 선출.

▲柳志昌(사회69-73 前산업은행 총재·前전국은행연합회장)=지난 6월 1일 유진투자증권 회장에 선임.

▲朴一煥(법학69-73 대법원 대법관)=지난 6월 23일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太應烈(무역71-75 前인천공항세관장·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지난 6월 3일 주택금융공사 부

사장에 임명.

▲趙潤濟(무역72-76 前주영대 사·서강대 교수)=지난 6월 10일 세계경제연구원 고문에 위촉.

▲朴明潤(보대원74-76 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 이사)=지난 6월 22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에 임명.

▲朴均省(법학75-79 경희대 교수)=지난 6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공법학회 제29대 회장에 취임.

▲韓 勳(산업공학76-80 前KT 전략기획실장)=지난 6월 1일 KT 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 炫(법학76-80 서울지방변호사회장)=최근 임기 4년의 미국 코넬대 평의회 위원에 임명.

▲千成寬(법학76-80 前대검 공안기획관·前수원지검장·서울중앙지검장)=지난 6월 21일 검찰총장에 내정.

▲柳春烈(신문77-83 前한국언론학회 부회장·국민대 교수)=최근 한국소통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權行民(경영78-82 前KT비전경영실장·前KTF 대표이사)=지난 6월 1일 KT과워텔 사장에 취임.

인 사

▲朴贊謨(화학공학54-58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지난 6월 26일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

▲玄昭煥(정치57-61 前연합뉴스 사장)=지난 6월 9일 임기 4년의 국제언론인협회(IPI) 이사에 선임.

▲柳志昌(사회69-73 前산업은행 총재·前전국은행연합회장)=지난 6월 1일 유진투자증권 회장에 선임.

▲朴一煥(법학69-73 대법원 대법관)=지난 6월 23일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太應烈(무역71-75 前인천공항세관장·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지난 6월 3일 주택금융공사 부

▲李昌敏(영어교육78-82 머니투데이 편집기획 상무)=지난 6월 3일 법조언론인클럽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

▲朴世烈(경영80-84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사장)=지난 6월 1일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북아시아 총괄사장에 선임.

▲姜泰赫(현대원84졸 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지난 6월 15일 한국은행 감사에 임명.

▲金甲猷(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최근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위원에 선출.

▲金七煥(ACAD 46기 前국회의원)=지난 6월 2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에 취임.

다' 시사회 개최.李동문은 이번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

▲李炯均(정치59-64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 사우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25일 서울무교동 아사히오리엔에서 경향신문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鄭興淑(가정교육59-63 중앙대 명예교수)=최근 서울 신사동 세실아트를 클래식 감상교실 '우리디제 아카데미' 개설, 매주 수요일 오후 영상콘서트 개최.

▲李容璟(전자공학60-64 국회의원)=지난 6월 8~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저작권회의(WCS)에서 기조연설.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6월 24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李泰鎮(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년기념논총 '문화로 보는 한국사'(태학사刊) 출판기념회 개최.

▲安澤秀(정치62-66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6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차 중소기업 국제협의회 총회에서 '신용보증기

금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연설.

▲李柱晟(대학원62-65 前성신여대 교수)=지난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제7기 명예졸업증서 받음.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최근 '도예디자인 상품개발 및 판매'라는 주제로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에 선정

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받음.
▲金任植(경대원70졸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지난 6월 25일 일본 도쿄 고쿠시칸대에서 한·일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 받음.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장)=지난 6월 12일 국민대에서 '실업급여의 개선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사회법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李振洙(의학68-74 국립암센터 원장)=지난 6월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립암센터에 지원해준 분들을 초청해 사은의 밤 행사 개최. 또 19일 암센터 국제학술회의장에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국가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都興祿(조소75-79 조각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윤니동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

화원 실크갤러리에서 부인 나오미 군지(동양화86-91)동문과 '20년의 기억'이란 주제로 부부전 개최.

▲李明淑(지구과학교육75-79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장)=지난 6월 25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을 주제로 국제회의 개최.

▲朴堉成(대학원79졸 성신여대 교수·한국노사관계학회장)=지난 6월 23일 서울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金興洙(경제78-82 한국건설산업연구회장)=지난 6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 회관에서 '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

기전망'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金在美(기악84-88 건국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6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 개최. 또 7월 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교류음악회에 초청 연주.

▲임상우(기악98-02 서울시향 클라리넷 부수석)=지난 7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베버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鄭義享(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지난 7월 1일 서울 조선폰텔 그랜드볼룸에서 韓昇洙국무총리를 초청해 극동포럼 특강 개최.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 ▲黃炳九(기계공학48졸 前인하대 부총장)=7월 2일 별세(91세)
- ▲吳鉉明(성악45-48 한양대 명예교수)=6월 24일 별세(85세)
- ▲金鍾錫(의학47-51 부여노인병원장)=6월 13일 별세(82세)
- ▲鄭石錫(법학48-52 前내무부 장관)=6월 8일 별세(80세)
- ▲趙世衡(독문50입 前민주당 상임고문)=6월 17일 별세(78세)
- ▲朴庠來(화학교육52-56 前미원 근무)=6월 8일 별세(78세)
- ▲李在浩(영문61졸 성균관대 명예교수)=6월 18일 별세(74세)
- ▲申東宣(수학56-60 이화여대 명예교수)=6월 22일 별세(72세)
- ▲金炳圭(농공학61-68 前문화일보 편집국장)=6월 28일 별세(67세)
- ▲高光三(인류65-72 前KB신용 부사장)=6월 14일 별세(63세)
- ▲金殷洙(외교71-75 前주남아공 대사)=6월 20일 별세(56세)
- ▲徐東晚(정치75-81 상지대 교수)=6월 4일 별세(53세)
- ▲劉弘根(사법89-93 외교통상부 참서관)=6월 6일 별세(40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나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행 사

▲權赫昇(상학53-57 한국경제전략연구원 이사장)=지난 7월 2~8일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喜壽書展 개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체 작품 80여 점 전시.

▲李仁子(가정교육55-59 건국대 명예교수)=지난 6월 15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 M관에서 장남 李相勳(공법81-85) 동문과 공동 제작한 영화 '킹콩을 들

신 간

따뜻한 가족

－ 金后蘭 지음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金后蘭(가정 교육53집)이 사장이 등단 50주년, 반 세기를 맞아

70여 편의 작품으로 열 번째 시집을 펴냈다. 이 시집은 온갖 기계문명의 홍수와 자본만능의 물신주의 광배현상 속에서 인간상실, 가족해체가 심화돼 가는 어두운 풍경 속에서 인간 회복을 노래한다.

金동문은 끊임없이 시의 깊이와 언어의 절제를 도모하면서 작품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 이웃에 번져 가는 등불이기를 희구한다며, 작은 목소리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삶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고 북돋워 주고 싶다고 말한다. 〈시학刊·값10,000원〉

높은 산 바위와

한 알의 모래

－ 金顯燦 지음



호를 따서 ‘巖巖과 壺砂’라는 수상집을 펴냈다.

이 책에는 골프, 고교 동창, 기억에 남는 편지, 노년 여성의 우울증, 名醫의 기본, 미국 연수, 행복한 노후 등 20여 편의 단상이 담겨 있다.

특히 존경받는 교수의 요건인 5T(Teach, Truth, Think, Tough, Trust)를 소개한 부분과 요즘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유능한 교수는 5M 즉, 치장(Make up)을 하고, 유행(Mode)을 따르고, 이권을 쫓아 옮겨 다니고(Move), 때로는 마스크(Mass communication)에 출연해 허세도 부리고, 무엇보다도 금전(Money)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명광기획刊·비매품〉

Essays on History

－ 金熙俊 지음

전북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金熙俊(철학61-65)동문이 37년간의 교단생활을 정리하면서 현대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한 권에 담았다.



영국의 무신론적 철학자 안소니 플루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 이탈리아 해겔학파의 대표자 도메니코 로수르도와의 교신내용, 국내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泐巖 朴鍾鴻 교수에 대한 소감 등을 영어와 독일어로 소개했다.

2부는 전북대 철학과 워크숍에서 발표한 金동문의 논평문을 시의에 맞게 수정 보완해 기록했다. 〈비매품〉

21세기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

－ 李正馥 편저



을 제시한 정치학자 29명의 글을 정리하고 21세기 한국 정치의 과제를 소개했다.

이 책은 우선 망국과 분단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국내 정치적, 국제 정치적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어떠한 성격의 국가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정부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9,000원〉

의녀 김만덕

－ 權武一 지음



조선후기 제주출신의 거상이며 여류 자선가인 김만덕의 삶을 조명했다.

權동문은 이 소설에서 기생의 삶을 꾸미면서 김만덕의 갖은 수모와 고뇌를 그렸고 김만덕이 객주로 활약하던 시절의 사회상과 제주도에 불어오는 상업과 교역의 변화를 접목시켰다. 특히 갖을 만드는 일이 당시에 통영에서 제주도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權동문은 김만덕이 노블레스 오

1부는 20세기 독일의 실존철학을 대표하는 하이데거와 독일 주간지(Spiegel)의 인터뷰 내용,

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부와 명성은 사회가 부여한 것이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설명한다. 〈문학과의식刊·값10,000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 黃琪源 지음



펴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의 行樂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문헌 및 사진자료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조선시대의 풍속에 관한 그림과 사진자료 및 고지도, 1890년대부터 1920년대 동안의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에 나타난 재미있는 신문기사, 전통마을의 답사 등에서 행락과 관련된 것을 개별적으로 모아서 해석한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그 행간에는 저자의 의견, 혹은 환경설계가로서의 상상이 가미돼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최고 과학자들

－ 吳憲錫 외 지음



류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 과학자 31명의 삶의 여정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담은 책.

金鎮義·金明洙·俞香淑·高季媛·吳世正·金奎源·金禮東·劉龍·崔在天·金善榮·李永淑·白敬喜·李珩睦·崔毅柱·李淇明·蔡東虎·安敬源·黃準默·趙潤濟·朴東洙·金빛내리·姜錫眞등문 등을 인터뷰하고 이들에 관한 각종 언론기사, 방송자료,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분석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2,000원〉

韓國外交의 自畫像

－ 李庸中 지음

동국대 법학과 李庸中(행대원 91-93 李僞국제법연구원장)교수

공연

陳宇卿 피아노 독주회

－ 7월 20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陳宇卿(기악90-94 성신여대 강사)동문(사진)이 오는 7월 20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모교 졸업후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陳동문은 이날 슈만,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김시내 첼로 독주회

－ 8월 1일 예술의 전당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와 트로싱엔 국립음대 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金시내(기악99-03)동문(사진)이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갖는다.

현재 한세대, 선화예술학교 등에서 강의를 펼치고 있는 金동문은 이날 국내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 기획 586-0945〉

피아노 다 카메라 공연

－ 8월 4일 금호아트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함께 수학한 피아니스트 정성문(기악 92-96)·권경희(기악93-97)·박재은(기악93-97)·양경아(기악93-97)·유순영(기악93-97) 동문으로 구성된 Piano da Camera가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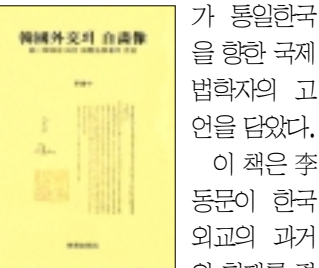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노 다 카메라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베토벤, 리스트, 슈만, 쇼팽 등의 사랑을 담은 곡들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텍사스주립대 동문음악회

－ 8월 4일 예술의 전당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함께 수학한 피아니스트 박재연(기악 94-98)·徐允晋(기악94-98)·金容和(기악96-01)동문 등이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7회 동문음악회에서는 히나스테라, 슈만, 브람스 등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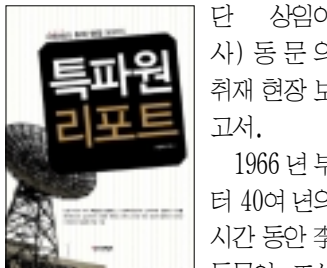
가 통일한국을 향한 국제법학자의 고언을 담았다.

이 책은 李동문이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통일 조국의 미래를 기하기 위해 쓴 글의 모음이다. 국제관계 사상과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며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많으며 논문의 많은 부분이 선행 연구자의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발표한 칼럼을 보완한 글을 수록했다. 〈이준출판사刊·값20,000원〉

특파원 리포트

－ 李民熙 지음

KBS 도쿄특파원을 지낸 李民熙(신대원73-75 사랑의 복지재



단 상임이사) 동문의 취재 현장 보고서. 1966년부터 40여 년의 시간 동안 李동문이 조선일보·경향신문의 교열·교정부 기자, TBC 정치부 기자, KBS 해설위원·감사실장, KBS문화사업단 사장, KBS미디어 사장, 홍익대 교수 등 언론인으로서는 치열한 여정을 걸어온 생생한 현장 기록이 담겨 있다. 또 국내의 특종 취재 경험을 사례로 실어 기자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특종 취재 사례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해외 특파원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국제적인 취재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한스컨텐츠刊·값15,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이준행(섬유공학48-54)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인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운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형원(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운환(입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학동창회
- ◆5천50만원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이중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석(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운(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중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허병하(상학58-62)
△홍예포(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 ◆1천2백만원
△강우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 (법학70-77)
△한규택 (원자핵공학73-77)
◆1천1백50만원
△천남중 (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 (의학50줄)
◆1천1백10만원
△이홍중 (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수 (자원공학73-77)
·김태훈 (건축학02-07)
△정해남 (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 (의학54-60)
△조내규 (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 (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욱 (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 (행정학57-62)
△심이택 (화학공학57-63)
△이영필 (항공공학66-71)
△이형하 (법학74-78)
△지헌택 (치의학43-47)
△허성길 (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 (사회교육51-55)
△강용현 (법학71-78)
△강행언 (토목공학61-65)
△권동은 (FIP 4기)
△권혁웅 (불어불문59-63)
△금진호 (법학50-58)
△김 철 (기계공학64-68)
△김기춘 (법학58-62)
△김두만 (상학59-63)
△김미령 (약학74줄)
△김백준 (수학62-66)
△김병린 (토목공학55-59)
△김상호 (법학72-76)
△김선양 (중어중문84-88)
△김연호 (화학공학71-75)
△김영갑 (법학74-78)
△김영석 (경제학60-66)
△김영재 (공업화학77-81)
△김원배 (동물학55-60)
△김윤중 (약학64-71)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김은식 (국사학73-80)
·윤영옥 (생물교육72-76)
△김일섭 (경영학64-69)
△김재범 (산업공학74-78)
△김재호 (생물교육53-57)
△김주환 (토목공학57-61)
△김진규 (기계공학61-66)
△김찬욱 (기계공학55-59)
△김철수 (법학52-56)
△김평우 (법학63-67)
△류태환 (상학48-54)
△문규철 (응용화학69-73)
△문대원 (경영학71-75)
△문명국 (기계공학73-75)
△문성훈 (식품공학86-92)
△박덕칠 (기계공학57-61)
△박명학 (영어교육61-65)
△박종국 (농화학57-63)
△박준우 (의학75-81)
△박진희 (무역학76-80)
△박창우 (경제학80-84)
△배명인 (법학52-56)
△백사익 (채광학40-42)
△변상현 (의학51-57)
△서계숙 (기악56-60)
△석학진 (상학58-64)
△설동섭 (축산학53-57)
△신방호 (경제학67-71)
△신윤식 (사학55-59)
△안경상 (행정학57줄)
·김정애 (가정교육54-58)
△양배덕 (전기공학57-61)
△양성철 (정치학58-64)
△엄기영 (사회학70-74)
△오병제 (AMP 21기)
△오용섭 (임학60-66)
△유희춘 (상학49-55)
△윤영석 (경제학58-64)
△윤희진 (축산학63-67)
△이강수 (상학51-55)

△이정호 (행정학61-65)
△이계우 (행정학58-63)
△이동철 (토목공학78-82)
△이병재 (경대원69줄)
△이병형 (화학67-71)
△이상현 (정치학64-68)
△이석운 (영어영문50줄)
△이송은 (상학53-57)
△이인기 (지질과학62-66)
△이재후 (법학58-62)
△이전구 (임학60-64)
△이종웅 (기계공학65-69)
△이진규 (치의학78-84)
△이창기 (약학55-59)
△이창원 (법학55-60)
△장무환 (경제학45-51)
△장세권 (농공학70-76)
△장익용 (기계공학54-58)
△장지준 (의학70-77)
△장휴동 (농경제학59-63)
△조길웅 (HPM 14기)
△조정훈 (자원공학75-81)
△최남해 (상학52-56)
△최선집 (사회교육75-79)
△최승철 (기계공학66-70)
△최준기 (조선항공57-61)
△추재욱 (의학63줄)
△표상기 (원자력공61-65)
△하영기 (정치학44-48)
△한창섭 (정치학57-62)
△故함인영 (기계공학48줄)
△함정호 (행정학53-57)
△허 선 (정치학64-68)
△홍순자 (독어교육61-65)
△황경로 (AMP 11기)
△황남주 (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상복 (종교학57-63)

△김현산 (법학54-58)
◆7백만원
△정경모 (행대원65-67)
◆5백만원
△박수복 (농생물학56-61)
△신박일 (약학60-64)
△윤성근 (공업교육74-78)
△윤순녕 (간호학69-73)
△윤익석 (축산학49-53)
△이윤경 (간호학65-69)
△이현구 (AMP 52기)
△조상근 (행정학69-73)
△조원환 (AMPP 6기)
△법대37회 동기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 (김명도)
△오사카지부동창회
◆3백90만원
△이정식 (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 (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 (화학57줄)
△이종복 (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 (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 (농경제학69-76)
△권숙일 (물리학54-58)
△권학창 (지구과학69-76)
△김영수 (법학60-64)
△김재율 (경성법전39줄)
△박금식 (화학54-58)
△안재동 (상학60-67)
△이동수 (건축학61-66)
△이성기 (행대원63-65)
△이재식 (교육학75-79)
△임채주 (경제학55-59)
△정영채 (수의학56-60)
△정주석 (법학61-65)

△하재규 (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 (축산학68-72)
◆2백30만원
△강충원 (전기공학59-65)
△이준형 (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 (생물교육70-74)
△나정우 (농공학72-77)
△문창극 (정치학68-72)
△박태원 (정치학46-50)
△성기학 (무역학66-70)
△오복동 (법학57-63)
△윤정일 (교육학62-66)
△이경렬 (응용미술69-73)
△이원태 (농경제학64-68)
△이종순 (법학57-61)
△이현조 (철학52-57)
△이흥구 (법학53입)
△이희호 (교육학46-50)
△임규은 (행정학53-57)
△정용인 (법학60-64)
△최창식 (의학54-60)
△한영국 (경제학50-54)
△허영호 (전자공학71-75)
△홍석준 (사회학73-77)
△황선용 (사회교육57-61)
△황선태 (법학66-70)
△황의인 (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 (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 (금속공학57-62)
◆1백60만원
△인효석 (농공학80-87)
◆1백50만원
△곽 승 (화학공학59-63)
△김건호 (수의학70-74)
△윤옥영 (수학58-61)
△이기남 (수학67-71)

△이진호 (화학공학85-89)
△정성진 (법학58-63)
△조귀장 (사법학86-90)
·김주영 (지리학92-97)
△조현래 (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 (법학57-59)
△김종철 (치의학71-77)
△김진익 (법학55-60)
△문일환 (치의학65-71)
△송진해 (공업교육63-72)
△양동관 (법학67-71)
△이용우 (공업교육64-68)
△이태형 (상학59-63)
△임한조 (물리학67-71)
△정희위 (법학62-66)
△조병철 (섬유공학59-65)
△최동식 (법학76-80)
△최명재 (상학48입)
△추호석 (경영학69-73)
△현천욱 (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 (농업교육63-67)
◆1백21만원
△박정식 (약학57-61)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22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백만원
△강성수 (섬유공학57-61)
◆50만원
△이윤주 (상학63-70)
◆30만원
△김종욱 (섬유공학61-65)
△임석진 (정치학52-56)
◆20만원
△손영수 (경영학68-72)
◆12만원
△이석재 (철학86-90)
◆10만원
△신병진 (사회학57줄)
△이재정 (무역학81-85)
〈이상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9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09. 2. 24. ~ 4. 29) · 일반 (09. 2. 24 ~ 4. 27)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기중 법대83
△곽수년 농대71 △구자춘 법대54
△김상도 공대78 △김영식 상대57
△김우식 공대80 △김춘강 미대64
△김평우 법대63 △나양명 법대66
△명건식 문리67 △박명식 공대74
△박삼서 사대69 △박성근 법대86
△방정애 사대60 △서장원 AIC15
△설용수 ACAD53 △손복조 문리70
△신동열 GLP3 △오덕영 AMPP8
△오태근 AMPP8 △유상열 농대78
△유재준 자연80 △윤병성 농대54
△윤진수 법대73 △이근희 AIP26
△이보현 법대58 △이장호 상대63
△이재창 SGS4 △이준재 농대57
△이찬진 법대83 △이창근 경영70
△장철식 공대49 △정기봉 사회75
△정인희 생활86 △조규향 법대60
△조기호 AMFR14 △차정균 行院97
△차준영 사대72 △최남해 상대52
△최양희 공대71 △한명환 법대60
△함용빈 行院73 △현준용 인문86
△현창수 AMP56 △황형도 법대71

(일반) △강재경 상대57
△고 강 차대69 △구영삼 사회82
△구용호 SGS18 △권보상 의대97
△권영인 ASP11 △권혁승 인문81
△김 속 사회70 △김기홍 수의81
△김남수 법대00 △김동현 사대76
△김명자 GLP13 △김무진 농대60
△김복기 자연90 △김성린 농대77
△김성보 ASP11 △김소정 인문98
△김원선 음대04 △김인상 AMP57
△김종석 AMFR23 △김종현 大院73
△김준재 의대78 △김지환 수의97
△김채훈 농대04 △김철환 상대53
△김혜리 의대04 △김혜민 인문02
△남웅중 AMP32 △노태식 AMP64
△류제원 공대85 △문치호 공대96
△민미란 생활81 △민소원 경영02
△박성혁 사회99 △박종국 인문82
△박효봉 공대58 △백두옥 行院82
△백승렬 인문83 △변인숙 처대72
△서순화 AMP30 △서윤록 경영82
△손영재 법대81 △손호성 行院05
△송호웅 大院95 △신건성 의대87
△안경희 AMP65 △안재동 GLP18
△안태현 경영99 △양현모 인문04
△여두현 경영05 △유경모 공대03
△유용빈 인문01 △유익선 공대59
△유인광 수의81 △유종렬 음대59
△윤민영 HPM21 △윤찬호 수의69
△이남준 ASP13 △이동진 GLP16
△이문규 문리63 △이병욱 ASP10
△이부원 SGS20 △이상훈 사대68
△이석한 공대68 △이성철 의대69
△이양우 법대59 △이영호 경영74

△이유희 음대68 △이음전 간호49
△이재민 생활02 △이정원 생활00
△이창석 사대93 △이필호 공대62
△임재열 공대82 △임호윤 상대68
△장기원 ASP5 △전신재 사대59
△전영호 약대81 △전용범 자연81
△정수영 공대00 △정승용 의대85
△정태주 음대52 △정현경 약대83
△조현일 법대82 △차태근 공대00
△최규익 상대54 △최기영 의대83
△최민아 자연03 △최준근 의대82
△하영환 공대47 △한기세 음대67
△한천옥 사대71 △홍기호 AIP40
△홍성연 음대03

이 사

◆인문대 △강병국78 △김동철78
△김상호81 △김학래74 △오세중79
△오정택82 △이택기75 △임운봉64
△진준현77 △최갑수72 △홍성윤73
◆사회대 △김성식77 △김용숙76
△민병립71 △박재하77 △이상용74
△이철휘72 △임 철75 △조성원88
△조영일77
◆자연대 △김 윤68 △송세안79
△양명룡74 △엄원근77 △유건호78
△이창복68 △정철희75
◆간호대 △이선자61 △최은숙89
◆경영대 △김상범78 △김석호77
△백우현74 △성택현76 △원효성79
△임근상80
◆공대 △강승복64 △강희동67
△고재홍75 △국전표60 △권도엽72
△권익현69 △권호진74 △김경배68
△김광욱62 △김교성51 △김군희67
△김규갑57 △김노수45 △김도심52
△김동성73 △김동진68 △김명호74
△김문경61 △김범수86 △김병욱76
△김선복62 △김성철70 △김신원64
△김양곤65 △김연철67 △김영호78
△김용철68 △김윤규62 △김인상67
△김인선65 △김재만74 △김종구68
△김종근54 △김종식77 △김종의59
△김종필70 △김종호72 △김진근71
△김진무65 △김진영68 △김창호72
△김철화68 △김대문70 △김대정69
△노철균70 △문석형50 △문찬국73
△문홍길76 △문희성57 △박기찬64
△박동서61 △박삼진73 △박영길78
△박용준52 △박재규56 △박종일47
△박종택48 △박찬민57 △박찬빈60
△박창용66 △박대원49 △박황호65
△배무현72 △배재흥70 △백승환71
△백영학49 △백형배47 △변응현66
△서두석71 △선우중호59 △설원길48
△성창모75 △손태원72 △송배원75
△송재준66 △신건일63 △신기룡70
△신선호66 △신양호71 △신원기66
△신훈철47 △심명필69 △안기원68
△안재후52 △양현승58 △염기대68
△목영석78 △원성필75 △유동일75

△유승빈63 △유영은86 △윤세한79
△윤팔문57 △이명호53 △이범창52
△이범호54 △이범하69 △이봉주67
△이봉환68 △이상룡50 △이상만70
△이상준64 △이성오78 △이승기70
△이영우79 △이종현47 △이주선64
△이진우80 △이형도61 △이희승60
△임서환67 △임승진71 △장영배72
△장진양67 △장학순46 △정상진68
△정순천66 △정조섭56 △정태현73
△조남혁57 △조외래68 △조택호61
△조형제51 △차금렬59 △전유식65
△최길선65 △최두환79 △최상훈71
△최영식50 △최철규66 △최형남66
△최홍영69 △홍영희54 △홍태희69
△황이선63 △황일인59
◆농대 △곽소수60 △금태섭73
△김광호61 △김동태62 △김순규62
△김영섭65 △김정묵59 △김진석69
△김태영82 △김환영74 △김훈동63
△문철명60 △박기수71 △박동우70
△박선현71 △박창용65 △박형만75
△배정길61 △부경생60 △사공문72
△서기호60 △안수구73 △오세승53
△유 석59 △유원형70 △유재영58
△윤여두67 △이경국78 △이규승67
△이도경56 △이동선73 △이무근60
△이상용61 △이상하56 △이성호71
△이승경75 △이임영81 △이희석57
△조종수66 △조진환50 △지근진58
△채제전64 △허길행65 △홍현주73
◆문리대 △강승렬62 △강신성65
△구봉회62 △구자강68 △김건중66
△김규상57 △김덕창59 △김상복57
△김영일62 △김용범60 △김치수60
△김태수62 △남기민69 △노재봉53
△류종택60 △민경덕59 △박경석55
△박동수46 △박영배65 △박의승60
△박종철61 △박창일61 △박흥식66
△방석기62 △변 형61 △손재국65
△신윤식55 △심문규71 △엄병윤60
△오원영59 △유재전57 △이기원50
△이시종67 △이원영69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윤54 △이주영61
△이해남65 △임정빈66 △정낙찬69
△정연하61 △정준택54 △조유전62
△조창진70 △지경홍60 △최경락71
△최희조63 △하영식58 △한영우57
△한태길69 △허운욱57
◆미대 △김 태51 △김 현78
△노숙자62 △박대순49 △박재호59
△송복희74 △윤형규58 △이금령76
△이종목76 △조정승59 △최명애70
△한동주70
◆법대 △강 훈72 △강구옥83
△강동세77 △강순걸54 △강신원72
△강재철77 △강태형57 △강희철75
△경우근67 △권광중61 △김경립60
△김경일62 △김경태63 △김나복75
△김덕영60 △김도언58 △김성길60
△김신택57 △김영우56 △김영재57
△김용원59 △김용철46 △김용환60

△김용환72 △김응열59 △김익하60
△김인겸82 △김창복51 △김태현46
△김허남49 △김현산54 △김환식67
△나경원82 △나정욱59 △남기춘79
△노승형58 △문호남74 △민수명60
△박동섭60 △박무용64 △박부찬56
△박상일77 △박승문78 △박영수52
△박익환81 △박준서58 △박준서59
△박태훈66 △박희문73 △배 도53
△서규영79 △서규택55 △서돈양56
△서정석65 △서장희82 △성시웅77
△성쾌문60 △소병철78 △신정철52
△신창호45 △심우영59 △안종윤51
△양영준72 △양희영52 △오경락54
△오세희58 △오시열75 △오연균76
△우익희66 △우창록70 △유기준78
△유호민63 △윤 탁61 △윤덕순59
△윤동운57 △윤보옥66 △윤성태61
△윤재열50 △이건종72 △이기웅50
△이동득59 △이두용54 △이사복46
△이성범70 △이수영64 △이원호61
△이윤승71 △이인상60 △이인표54
△이재근82 △이재철70 △이재환75
△이지희62 △이진배65 △이태운68
△이현승67 △임 경78 △임태유59
△장병봉63 △장준철67 △전재기58
△정광우61 △정덕장59 △정문화59
△정연조55 △정은구58 △정한상50
△정해주63 △제차룡60 △조용무60
△조준환65 △주진학54 △차정일61
△최거훈76 △최광률54 △최세관54
△최신석59 △최철국72 △한경국57
△한승희55 △한원규79 △함영업57
△황보경석50 △황보중74 △황이연55
△황인민48 △황창섭53
◆사대 △강봉근67 △강창석66
△강철용69 △구우영76 △권혁창69
△김남조47 △김상욱47 △김신복64
△김익관67 △김영국69 △김정홍57
△김준문48 △김진규58 △김진영65
△나병삼64 △노갑기66 △노옥섭66
△박봉상59 △박영민62 △박익두64
△박인호70 △박재공62 △박지모77
△박찬규56 △박화엽64 △성 현69
△신하영58 △신혜순47 △안승룡75
△여상인79 △왕문용66 △윤규태65
△윤용섭61 △윤익모62 △윤재봉56
△이광희66 △이동호59 △이상경65
△이승원73 △이안기71 △이원강57
△이준동60 △이홍식68 △임광수68
△장병환52 △정강주69 △정기탁74
△정응근63 △정준섭61 △조초희68
△최운식63 △하상기74 △황성욱68
◆상대 △권영식66 △권혁승53
△권희구56 △김내명63 △김대유71
△김대중66 △김무정54 △김병호57
△김용기56 △김정우65 △김정훈46
△김준식66 △김중수66 △김형만52
△나진원67 △남영태65 △문영도50
△박길부59 △박영호67 △박태일60
△박태하58 △서주성44 △손상모53
△송국현56 △신평재57 △안재전56

△안태호45 △양승우68 △어 준57
△오강욱56 △우순구53 △유영일53
△이갑현61 △이구수57 △이민순57
△이세근63 △이승섭50 △이일훈55
△이준용56 △이태환58 △이한희54
△장덕신71 △장병규64 △전문준64
△전영완50 △전창수57 △정주호65
△정태웅67 △정희영59 △조원래57
△진철명59 △최경식59 △최동건70
△최명규46 △한병무59 △홍면후46
◆생활대 △손인희72 △정태숙80
◆수의대 △김명웅60 △김본원63
△김상돈44 △김윤수74 △김진규61
△김창윤53 △김택수55 △남기용74
△박성권74 △박희춘66 △엄영호77
△오호성77 △이도필49 △이성모78
△장광호75 △차종삼56 △최병일59
△최희희71
◆약대 △강석진55 △권경권56
△김상조54 △김선중61 △김성오81
△김수경57 △김영택61 △김재환68
△김진우54 △김진현71 △도상복61
△박만기59 △서석수51 △송창진54
△오응준58 △유도봉66 △유태숙72
△윤도중58 △윤승로56 △윤혜숙62
△이규호60 △이순석61 △임상웅60
△정순간58 △최규팔70 △한규흥64
△허명권69
◆음대 △김대환89 △김동조73
△민희경77 △백원정65 △손국임64
△신상호74 △신정혜77 △이경숙50
△이동남66 △이숙미84 △이재숙59
△이한돈65 △장재홍57
◆의대 △고원순68 △김규한76
△김명주56 △김병국64 △김승원49
△김영균43 △김예원68 △김재면74
△김진조45 △김찬영46 △김현우64
△김형우55 △김환규78 △남상윤72
△노문진90 △노상권81 △박경환71
△박상규74 △박영수59 △박정범63
△박창화71 △백운집71 △심달섭45
△양승렬51 △오승환56 △유 권76
△유경삼64 △유명철61 △유병훈67
△유영성70 △유왕성75 △윤구섭79
△이갑노65 △이관희75 △이수철71
△이승규67 △이승훈74 △이윤호68
△이영수66 △이준근68 △이진용59
△임진호73 △장성근71 △정 민75
△정경태53 △정규범65 △정윤재75
△정진택46 △주근원43 △최 황63
△최동수54 △최복식84 △최세준53
△추광철60 △한병채58 △허병열60
△홍영식61 △황성남69 △황순욱72
△황호섭58
◆치대 △강대준62 △김관식69
△김규진64 △김기현56 △김봉호56
△김수남59 △김정균59 △김지호59
△김재중68 △김홍석57 △김홍석59
△문복강62 △박우찬68 △박환운56
△손 근71 △송영호57 △안효일58
△양일수73 △이금름58 △이병우76
△이수백70 △이시우59 △이영목76

△이용오⁵⁶ △이재현⁵⁰ △이한무⁶⁵
△임성수⁶⁰ △임순모⁷⁰ △정종선⁵⁷
△조형자⁶⁴ △주미희⁸² △최성근⁶⁵
△탁미선⁷⁶ △허연옥⁵⁵ △홍성호⁶⁰
◆대학원 △권혁길⁷⁸ △김승호⁸³
△박찬문⁷⁴ △배명진⁸³ △윤용훈⁹⁷
△이은기⁷⁷ △조대우⁷⁹
◆경대원 △김선대⁷² △김윤택⁶⁸
△박원봉⁶⁸ △양희석⁸⁶ △장몽인⁶⁶
△전도진⁷⁰ △조현국⁷³
◆교대원 △김정휘⁷³ △장석민⁷²
◆보대원 △구성희⁶⁷ △김윤신⁷²
△문인홍⁸¹ △박희서⁷⁷ △윤용길⁷⁰
△이규한⁶³ △조경중⁶⁸
◆사대원 △송정호⁶⁶
◆신대원 △김희욱⁷⁶
◆행대원 △권영규⁸⁰ △김익영⁶⁸
△김준봉⁷⁹ △김회동⁷⁸ △문화갑⁶⁶
△반장식⁸³ △양석호⁶⁷ △유금록⁸⁰
△윤일균⁶⁹ △정영섭⁶⁶ △허남식⁷⁸
◆한대원 △박상락⁸⁴ △박종일⁶⁴
△박형석⁷⁴ △윤용희⁸¹ △이만의⁷³
△이재근⁷⁹ △이광재⁷³ △황학래⁷⁴
◆AMP △강발길³⁵ △곽연구³⁴
△권용관⁵⁸ △김강배⁵⁰ △김건중³⁸
△김병실² △김승배⁴⁵ △박순일¹³
△서석해⁴⁰ △신정택⁴⁸ △이경일⁶¹
△이승철³³ △이영관⁵⁷ △이용표³⁶
△이중아³⁷ △장희수⁴⁵ △전현찬⁴⁴
△정명섭⁴⁹ △정은석⁵⁹ △홍완기²⁷
◆AIP △금병찬³² △김성길⁷
△김승겸¹⁶ △김원배¹⁹ △김후곤¹⁷
△우영식²⁸ △이명호²⁰ △이승규¹²
△이의현²⁰ △정희수³⁴ △조규승²⁰
△조성환²¹ △한미영³² △허 현²¹
◆ACAD △강남주⁵⁶ △권상문⁴⁵
△김종웅³⁹ △박영순⁴³ △배윤도⁵⁴
△송봉식⁵² △이상영⁴⁰ △이영태⁵⁵
△이재돈²⁸ △정종모²⁵ △최광주⁵⁵
△최동규⁵⁶ △한행수⁴⁴
◆ABP △김선제⁹
◆SGS △김수근² △김종호⁴
△손성오¹² △오현봉⁶
◆APC △함춘조²
◆HPM △김복희¹ △박상동²
△방금석² △서윤석⁵ △송정순³
△오국진⁵ △장찬기⁸ △황영운⁴
◆AMPP △신기찬² △이경재⁶
△이귀복⁵
◆AIC △김현식² △양봉기⁹
△이인기¹¹ △조정구⁸
◆AMPFRI △권상범² △김갑주³
△윤환식⁴ △최창혁⁴
◆FIP △윤백호⁴ △임광빈¹
◆GLP △강창석¹⁴ △김경식²
△나기용¹⁰ △노윤호¹² △배원섭¹⁴
△양재길⁵ △유영덕⁷ △윤여표¹¹
△이원욱¹¹ △임병선¹⁴
◆ALP △오도영¹ △지장국²

일 반

◆인문대 △강상진⁸³ △구자현⁷⁷
△김 영⁸⁸ △김능구⁸¹ △김대환⁸¹
△김동국⁸³ △김민지⁰¹ △김성식⁸⁴
△김영두⁸³ △김의진⁹⁷ △김재열⁹¹
△김치하⁸⁴ △김학균⁸⁹ △김혜정⁸²
△노성환⁸² △박상철⁸⁴ △박유진⁰⁰
△박진우⁹³ △박혜윤⁹⁴ △백승희⁸³
△변성수⁸⁴ △소은섭⁰⁰ △송인수⁸⁵
△오성민⁹⁷ △원선우⁰⁴ △유종필⁷⁸

△윤승용⁷³ △윤신철⁰⁰ △윤용복⁸⁴
△이동의⁹⁸ △이병하⁹⁴ △이상근⁹⁷
△이성균⁸³ △이영석⁷⁰ △이한구⁴⁶
△이한목⁷² △임삼진⁸⁰ △임성기⁷⁹
△장수현⁹⁸ △정말순⁸⁰ △정인교⁷⁶
△정제문⁷² △정진기⁸⁶ △조정래⁷⁰
△최광웅⁸² △최기용⁷⁴ △최동규⁷²
△최형균⁹⁰ △추희엽⁸³ △허 선⁰⁵
△허나윤⁸⁶ △허남정⁷⁷ △홍성범⁸⁷
◆사회대 △고은실⁰¹ △권용신⁸⁶
△김갑철⁸⁴ △김경수⁹⁰ △김광재⁹⁰
△김동진⁸⁸ △김봉준⁰⁰ △김서유⁸²
△김성권⁷⁸ △김수호⁹⁴ △김순태⁰³
△김의진⁹⁷ △김종만⁷⁴ △김종성⁸¹
△김지선⁰⁴ △김진기⁸² △노창현⁸⁷
△도종윤⁹⁷ △문도선⁸³ △박성민⁹⁴
△박순일⁰⁰ △박용은⁸⁷ △박자영⁸⁴
△박재진⁸⁹ △박지환⁰⁰ △박흥수⁰²
△서병선⁸¹ △성진규⁰¹ △손신명⁷⁸
△송상종⁷⁸ △심보선⁸⁸ △안백훈⁸¹
△오영환⁸² △윤여완⁹¹ △이고은⁰⁴
△이기선⁸⁴ △이동현⁸³ △이민주⁸⁸
△이상룡⁹² △이석원⁷⁴ △이수연⁰¹
△이시은⁰² △이용직⁸¹ △이재준⁰⁴
△이종선⁸⁷ △이주희⁹⁷ △이지현⁹⁸
△이차복⁸⁷ △이찬복⁹⁸ △이창수⁸⁵
△임일섭⁸³ △임재금⁹⁴ △임준혁⁰⁵
△전주현⁹⁰ △전형남⁸¹ △정규억⁷³
△정기욱⁰⁴ △정나형⁷⁴ △정삼봉⁷³
△정우진⁹⁵ △정재호⁷³ △정현민⁸¹
△정흥순⁹² △조상현⁸⁴ △최보선⁸¹
△최은미⁰⁰ △한지환⁸² △홍기범⁸⁶
△홍민영⁹⁶ △홍성창⁸⁹ △황선기⁸⁷
△황영수⁷⁷
◆자연대 △강 항⁰⁶ △강태인⁰³
△고연진⁰⁴ △김남우⁰³ △김두현⁹⁰
△김미연⁰⁵ △김병수⁷⁴ △김석진⁷⁸
△김수경⁷³ △김옥래⁹⁴ △김지미⁰⁵
△김태열⁰⁶ △문형민⁰⁴ △박용진⁰⁵
△박윤경⁸³ △백병하⁷² △염상영⁷⁷
△원유덕⁸¹ △이기원⁷⁷ △이동영⁰¹
△이상욱⁰³ △이준영⁸¹ △임정원⁹⁹
△장경우⁷⁸ △장영재⁹² △장종만⁷²
△전용호⁷⁵ △정병문⁸³ △정상원⁸¹
△정찬균⁸³ △정희영⁸⁷ △조봉환⁸³
△조완제⁸⁴ △채선규⁸¹ △최승주⁷²
△현민아⁰² △현창학⁷³ △홍대호⁰⁵
△홍석의⁸³ △황동규⁸⁴
◆간호대 △권오겸⁵⁶ △김선영⁸⁰
△김수은⁰³ △김시정⁹⁵ △김영신⁸³
△김정옥⁸⁷ △김혜경⁸⁸ △박문화⁵⁹
△백형자⁷⁸ △성영희⁷² △신선욱⁸³
△신은숙⁶⁵ △오명희⁶⁷ △육효순⁷⁹
△임미현⁰³ △채영순⁷⁴ △최영희⁶⁵
△최완희⁸⁴ △허성이⁸³ △현희수⁵³
△홍정희⁸⁶ △황혜민⁰⁶
◆경영대 △강동창⁰⁰ △강왕수⁸⁴
△구자일⁸⁶ △권용석⁰² △김대혁⁸¹
△김동현⁸⁶ △김종현⁹² △모영철⁸⁸
△박완근⁸⁸ △박윤준⁸⁰ △백장기⁷⁶
△서동규⁸⁴ △송준관⁹⁷ △송호찬⁷⁸
△안남기⁸⁷ △안성훈⁹⁰ △안철환⁸⁸
△오경승⁸³ △유대혁⁹⁸ △이상률⁰¹
△이상철⁹⁵ △이의열⁷⁰ △임정오⁶⁸
△장보훈⁸³ △전병욱⁸² △정승환⁸³
△정대윤⁷⁶ △정홍일⁰⁵ △조표훈⁹⁵
△조현탁⁸³ △조형수⁹⁹ △최정욱⁸⁴
△최지연⁰¹ △최진원⁸² △토카이⁰³
△허규만⁹⁷ △황소배⁹⁷
◆공대 △강대룡⁷⁸ △강도현⁰⁵
△강명한⁵⁵ △강신구⁵³ △강신원⁷⁵

△강영식⁶⁴ △강영식⁶⁸ △강영택⁶³
△강희동⁵⁷ △고 찬⁹⁹ △고국원⁴⁸
△고재선⁵² △공석봉⁵¹ △곽삼진⁵²
△구의서⁹¹ △구자령⁸² △구준모⁸¹
△권병수⁶² △권성주⁰³ △권순학⁶⁴
△권희곤⁷⁷ △김 정⁰⁴ △김광룡⁷⁴
△김광세⁶⁷ △김광은⁶³ △김광준⁷³
△김규남⁴⁷ △김기형⁹⁸ △김남길⁶¹
△김대웅⁶¹ △김대원⁰³ △김대호⁶⁸
△김동건⁸⁵ △김동규⁵⁸ △김동진⁸³
△김명준⁰³ △김민석⁰² △김방식⁴⁹
△김범석⁹² △김범수⁸⁹ △김범균⁰²
△김병숙⁵² △김병제⁵² △김병준⁵⁵
△김상규⁵⁹ △김상용⁵⁴ △김상원⁹⁴
△김상태⁵⁶ △김상태⁷⁷ △김성권⁹⁷
△김성기⁸⁰ △김성민⁹⁹ △김성언⁷¹
△김세환⁶¹ △김수광⁵⁷ △김수웅⁶⁰
△김수정⁰⁵ △김연상⁵⁵ △김영권⁸³
△김용균⁹⁶ △김용익⁵⁰ △김용인⁶⁶
△김용창⁶² △김우성⁶⁴ △김원경⁸²
△김인동⁸⁰ △김인용⁷⁴ △김재국⁰⁰
△김재환⁵⁴ △김정근⁶⁰ △김정덕⁶⁹
△김정우⁵⁶ △김정원⁶³ △김정철⁵⁵
△김종린⁶⁸ △김종명⁷⁰ △김종상⁵⁶
△김종채⁵⁵ △김종철⁷³ △김종환⁵³
△김주찬⁷⁵ △김준용⁰² △김지민⁰⁰
△김진한⁰⁰ △김창언⁶⁷ △김채식⁵⁴
△김철구⁶⁵ △김철수⁷⁰ △김철순⁵³
△김태문⁵⁵ △김택중⁵⁶ △김한영⁹³
△김현재⁹⁶ △김형기⁶⁶ △김희봉⁸³
△김희중⁰² △나경원⁹⁴ △나의택⁹⁸
△남광문⁶¹ △남궁석⁵² △노승환⁰⁰
△동현수⁷⁶ △류 훈⁸³ △류중희⁵³
△마종열⁸¹ △문동민⁵⁷ △민영빈⁰¹
△박경호⁷³ △박국진⁰⁵ △박동재⁵¹
△박순영⁰³ △박승엽⁴⁶ △박승찬⁵⁶
△박시동⁶⁰ △박신종⁶⁴ △박영순⁵⁴
△박용기⁷¹ △박인섭⁷⁰ △박일훈⁸⁹
△박장영⁵⁸ △박재복⁵⁸ △박재욱⁰⁰
△박준원⁴⁹ △박한조⁰⁰ △박현우⁵³
△박현철⁸⁵ △박형순⁶⁰ △박희렬⁵⁸
△박희경⁷³ △박희규⁵⁴ △반영삼⁷⁷
△방우섭⁵⁹ △배상호⁶⁸ △배성현⁰²
△배준일⁹⁸ △백남주⁴⁸ △백시익⁴⁰
△백선욱⁶² △백학기⁵² △백학선⁰⁴
△백효석⁶² △변문현⁶³ △변정근⁵²
△서민우⁰⁰ △서용운⁰³ △서장렬⁸³
△서정훈⁹⁷ △성백문⁸³ △성준호⁰⁴
△성현택⁹⁵ △손호인⁷⁴ △송영수⁰¹
△송을룡⁷⁰ △송주인⁵¹ △송창영⁶⁸
△신대승⁵⁵ △신상호⁵⁴ △신현국⁶⁸
△신현길⁶⁹ △심일보⁷³ △심재환⁵³
△안 용⁶¹ △안상록⁶⁸ △안용석⁹³
△안지혜⁰¹ △안진환⁴⁷ △안태영⁰³
△안형균⁰⁵ △양승철⁹⁹ △양정훈⁰²
△염승호⁷⁸ △연정인⁰⁴ △예병권⁸⁰
△오선래⁸⁰ △오장훈⁹⁷ △오태웅⁹⁴
△오형규⁰⁴ △오희근⁸¹ △우종민⁹⁷
△원일우⁷⁵ △원종석⁰⁴ △원진희⁴⁸
△유관호⁰¹ △유병동⁹⁴ △유봉환⁵⁶
△유심덕⁶¹ △유일상⁵⁷ △유준만⁶³
△윤도영⁶⁹ △윤석용⁵⁰ △윤주홍⁷⁰
△윤한상⁴⁹ △이 혁⁹³ △이건복⁷²
△이경진⁸² △이경태⁵³ △이경환⁶³
△이계호⁵⁸ △이광우⁶⁰ △이광재⁶⁷
△이규창⁵¹ △이근수⁵⁴ △이근호⁶⁷
△이기자⁹³ △이낙주⁴⁷ △이동욱⁰⁶
△이동희⁸⁵ △이두호⁹⁰ △이미지⁰³
△이민종⁷⁹ △이병인⁸³ △이병일⁹⁴
△이봉희⁷³ △이상래⁸⁴ △이상현⁷¹
△이석규⁵⁷ △이성재⁷⁵ △이성훈⁸⁵

△이세용⁸² △이세형⁸¹ △이수남⁶⁹
△이승률⁵⁵ △이승욱⁵⁶ △이용희⁷¹
△이원구⁸⁵ △이원모⁰⁰ △이유진⁶³
△이인재⁸² △이장원⁹⁹ △이재성⁰⁰
△이정국⁶² △이정우⁰³ △이정인⁵⁹
△이정진⁹⁵ △이정태⁶⁵ △이정호⁶⁵
△이종우⁸⁶ △이종화⁷⁶ △이주환⁰³
△이지은⁰⁴ △이진기⁴⁶ △이찬홍⁷⁴
△이창주⁹⁷ △이창환⁸⁰ △이철원⁶⁷
△이춘성⁷¹ △이태민⁸⁵ △이태식⁷³
△이태현⁹⁵ △이현식⁶¹ △이현웅⁰¹
△이호선⁹¹ △이호현⁵¹ △이홍석⁹⁹
△이화준⁶⁹ △이환계⁷² △이훈민⁷³
△이희근⁵⁵ △이희영⁸⁹ △임건록⁸³
△임무산⁶⁹ △임용택⁵⁵ △임종웅⁹⁹
△임종현⁰⁴ △임종호⁹⁶ △임채웅⁸⁹
△임태원⁴⁷ △임항빈⁸³ △임현웅⁶⁹
△임효빈⁶¹ △장동근⁵⁵ △장두희⁸²
△장웅재⁹⁴ △장희익⁶⁸ △정 발⁶⁸
△정건식⁵⁵ △정대환⁶⁵ △정동섭⁶⁴
△정미진⁰⁶ △정상열⁷² △정석현⁵¹
△정우석⁹⁸ △정원영⁴⁸ △정인수⁷³
△정인식⁷⁴ △정자철⁷⁷ △정재동⁰⁰
△정찬영⁵⁰ △정충길⁷⁰ △정학영⁷⁸
△정해길⁶⁵ △정현철⁵³ △정희용⁸¹
△조남산⁶³ △조민욱⁰² △조사홍⁵⁶
△조장하⁵⁷ △조정민⁸⁴ △조정상⁹⁴
△조창현⁸⁴ △조정일⁷⁹ △조태훈⁷⁷
△조형래⁵⁸ △주기만⁶⁴ △진영안⁶⁰
△차석배⁶³ △채규남⁴⁹ △채수창⁶²
△최 탄⁶² △최건영⁰⁰ △최국봉⁴⁷
△최규식⁰⁰ △최민호⁰² △최석주⁵¹
△최성범⁰⁵ △최승호⁹² △최원길⁷⁰
△최정해⁸⁶ △최준철⁷¹ △최하식⁴⁶
△최휘철⁶² △하상모⁹⁸ △한건우⁵⁵
△한대희⁹² △한은균⁵⁹ △한정우⁹⁸
△한중수⁹⁸ △한태영⁹⁵ △한희서⁶¹
△허광영⁰⁵ △허규영⁰⁰ △홍석기⁰⁴
△홍성범⁵⁶ △홍용수⁷¹ △홍현성⁷²
△황보명⁰³ △황세라⁰⁴ △황용희⁸⁵
△황인호⁵⁶ △황정정⁵⁹
◆농대 △강경원⁵² △강신표⁵⁵
△강충경⁷⁹ △강형우⁰⁰ △공대우⁰³
△권원중⁵⁶ △권정혁⁶⁰ △금방용⁸⁵
△김남현⁷⁴ △김대경⁵¹ △김두만⁵²
△김명진⁵⁶ △김문찬⁸³ △김병윤⁵⁵
△김상후⁶⁴ △김석동⁷² △김석중⁸⁷
△김신호⁷⁰ △김영길⁵³ △김영상⁵⁸
△김영은⁹⁰ △김영주⁰⁰ △김영철⁵⁵
△김용환⁷⁷ △김원달⁶⁷ △김원훈⁴⁹
△김인수⁶⁷ △김일희⁵² △김정교⁴⁹
△김정화⁶⁰ △김종근⁹⁰ △김종언⁹¹
△김종원⁵⁷ △김종천⁵³ △김준호⁰¹
△김진수⁷⁰ △김진철⁵¹ △김태호⁸⁰
△김태희⁵⁷ △김한석⁶⁶ △김현수⁵⁵
△김현준⁶⁹ △나병용⁶⁹ △류재웅⁵²
△문현동⁷⁰ △민경복⁸¹ △민두식⁵⁴
△민영준⁴⁸ △민인기⁶⁷ △박기하⁴⁹
△박남중⁵⁴ △박돌서⁸⁰ △박성언⁰¹
△박숙규⁴⁸ △박완수⁷⁵ △박용길⁵³
△박우철⁶⁹ △박진구⁸⁴ △박관규⁵⁵
△배대환⁴⁸ △백유현⁵⁵ △변양석⁵⁹
△변우일⁸³ △서범석⁰² △서정겸⁶⁷
△서정택⁶⁷ △성우경⁵⁰ △손낙률⁵⁶
△손진규⁸² △송계원⁴⁵ △송기언⁵⁵
△송석준⁵⁰ △송정흠⁸³ △송종익⁵⁵
△송준중⁵⁵ △신동완⁵⁰ △신승규⁰²
△신일선⁵⁸ △신재인⁵⁶ △신종복⁵⁴
△신진섭⁷⁸ △심상우⁵⁷ △안상남⁵⁸
△안승요⁵¹ △안치일⁷³ △양준웅⁶³
△염익환⁷⁸ △오무영⁵⁵ △오민영⁵¹

△오원식⁸³ △오윤진⁵⁶ △오정행⁶⁰
△오현준⁵⁶ △원인희⁷³ △원후식⁵⁶
△유기성⁵⁶ △유기형⁵³ △유병윤⁵⁴
△유상철⁶⁴ △유중철⁵⁷ △유철호⁶⁴
△윤상철⁸⁰ △윤성준⁸⁸ △윤수철⁶⁸
△윤용건⁵² △윤인화⁵⁵ △윤창원⁶⁷
△이경영⁹² △이경웅⁵³ △이계은⁵⁵
△이광선⁵⁷ △이대직⁴⁸ △이덕립⁵⁸
△이동열⁰¹ △이명남⁶³ △이미화⁹⁸
△이민재⁵⁷ △이범일⁶¹ △이병천⁵⁵
△이상귀⁸⁸ △이상직⁵⁶ △이세표⁵⁵
△이수봉⁵⁷ △이영열⁵⁴ △이원규⁵⁸
△이원석⁰⁵ △이원희⁵⁰ △이인모⁶⁵
△이인형⁵⁶ △이정미⁰² △이종록⁴⁹
△이종섭⁵⁷ △이종우⁹¹ △이주효⁹⁹
△이중기⁵⁵ △이중택⁷⁶ △이지혜⁰¹
△이창구⁶⁶ △이태윤⁰³ △이택원⁵²
△이형구⁶¹ △이형주⁸¹ △이홍석⁵²
△임노현⁵⁷ △임성빈⁵⁷ △임형백⁸⁹
△장동훈⁵³ △장세종⁶⁶ △전성익⁵⁵
△전우방⁵⁵ △전재성⁷² △전건일⁰⁵
△정구현⁵³ △정도섭⁵⁷ △정돈철⁶⁸
△정병기⁵² △정수봉⁶⁰ △정승모⁵⁰
△정승우⁰² △정연석⁴⁸ △정조래⁵⁷
△정태원⁵⁷ △정해영⁶⁶ △조준기⁵⁴
△조한보⁴⁸ △주민영⁸⁸ △주봉철⁷⁸
△천기길⁵⁷ △최동균⁵⁶ △최동열⁵⁰
△최무재⁵³ △최성규⁵⁸ △최원개⁵⁰
△최유지⁹⁷ △최태동⁷¹ △최태진⁴⁶
△최현숙⁶⁵ △하 원⁸² △한광희⁵⁵
△한기문⁹⁴ △한상복⁵⁴ △한석현⁵²
△한정수⁵¹ △한해룡⁵⁵ △허병현⁰¹
△허삼남⁶⁸ △현재선⁴⁴ △홍석인⁵⁷
△홍순홍⁵⁸ △홍철선⁵⁸ △홍택영⁵⁷
△황석중⁵⁸ △황용진⁵⁶ △황재문⁶⁹
△황태상⁰¹
◆문리대 △공상천⁶⁵ △구자영⁶⁵
△권순식⁶⁵ △김경환⁶⁵ △김동호⁷⁰
△김숙자⁵² △김영철⁵⁷ △김용남⁶³
△김용성⁴⁶ △김유석⁵⁵ △김일송⁶³
△김재영⁵⁴ △김정숙⁵⁸ △김종엽⁶¹
△김주만⁷² △김지영⁶⁴ △김진석⁵⁹
△김치근⁵³ △김현남⁴⁷ △김형련⁶⁶
△김형일⁵⁴ △김형호⁵⁸ △김희영⁵²
△남정길⁶¹ △도태균⁶³ △류민성⁶⁴
△명동원⁷¹ △문영순⁵¹ △문현석⁶⁶
△민경전⁴⁶ △박대일⁶¹ △박상철⁴⁸
△박순수⁴³ △박애주⁴⁷ △박옥줄⁴⁸
△박용배⁵⁹ △박재길⁷¹ △박종민⁵⁴
△박중규⁶⁹ △박찬범⁶² △박태동⁶⁸
△박태원⁴⁶ △박택규⁵⁵ △방재환⁶⁶
△백지현⁴⁸ △변중섭⁴⁸ △서기원⁵⁷
△서병

△전민수⁵⁵ △전종현⁵⁵ △정기호⁵⁰
△정서구⁶⁵ △정영의⁵⁵ △정일정⁶³
△정주년⁶³ △정철현⁵⁵ △정한택⁴⁶
△정해일⁵⁸ △조 흥⁶⁶ △최 진⁵⁶
△최규봉⁵³ △최남준⁵⁶ △최명근⁵⁷
△최연균⁶⁷ △표철수⁶⁹ △하이영⁴⁸
△한정인⁵⁰ △홍경화⁵⁴ △홍남표⁶⁹
△홍승표⁵⁹ △황재운⁵³ △황하복⁵⁶
◆미대 △김선미⁸⁸ △김한걸⁹⁹
△김해림⁸¹ △김희춘⁶² △박근호⁵²
△박정기⁶⁴ △박혁살⁰³ △변대성⁵⁴
△손대홍⁷⁹ △송화원⁹³ △신현경⁷⁹
△오병근⁸² △원묘희⁵⁹ △유영일⁸³
△윤옥진⁶⁴ △이근민⁰¹ △이선원⁷⁵
△이성도⁷⁴ △이정숙⁶⁵ △이철주⁶¹
△이혜인⁶⁴ △장정선⁶⁴ △정규현⁰²
△정선화⁵⁶ △정영조⁵⁵ △정정자⁶⁰
△조새미⁹² △조용숙⁶¹ △주진희⁷⁴
△지윤미⁶² △최경주⁰⁴ △최숙경⁵⁹
△함영희⁷⁷ △홍경희⁶⁶
◆법대 △강 성⁸⁶ △강군우⁶⁷
△강도원⁸⁸ △강영근⁸⁴ △강재섭⁶⁷
△강진성⁵⁵ △강형주⁷⁷ △강형춘⁵⁴
△강효창⁰¹ △고재화⁶² △구운희⁵⁸
△구지순⁵³ △국상중⁸¹ △권상경⁰¹
△권순형⁸⁶ △권영성⁵³ △김국열⁹²
△김근수⁸⁰ △김기수⁴⁷ △김기정⁸⁰
△김기현⁵⁷ △김길영⁵¹ △김남수⁶⁴
△김동현⁶⁷ △김득환⁷⁹ △김래니⁸⁸
△김명주⁶⁷ △김무길⁵⁹ △김문수⁶⁶
△김병구⁸⁴ △김병호⁸² △김봉수⁶⁶
△김시영⁷⁶ △김상호⁷² △김선병⁸¹
△김승호⁹⁰ △김용덕⁷⁶ △김용제⁵³
△김용채⁷¹ △김우석⁹⁴ △김운용⁸¹
△김윤구⁵¹ △김의환⁸¹ △김일덕⁵⁶
△김재철⁵⁷ △김재춘⁵⁶ △김정중⁹¹
△김정태⁷⁵ △김종기⁷⁵ △김종식⁶⁸
△김주일⁵⁸ △김주현⁰¹ △김준호⁵²
△김중성⁸¹ △김지욱⁶¹ △김진기⁶⁷
△김진병⁸⁵ △김찬동⁵⁰ △김창근⁵¹
△김창희⁸¹ △김태병⁸⁵ △김해산⁵⁷
△김희용⁶⁰ △노대래⁷⁴ △노생만⁸¹
△노승권⁶⁴ △노창동⁸² △노창호⁵⁴
△도용락⁶⁴ △류진열⁷² △명완식⁵⁴
△문대탄⁵⁷ △문호준⁹⁰ △박동규⁰²
△박상우⁷⁵ △박성달⁵⁶ △박세홍⁰²
△박양한⁶⁰ △박영우⁵³ △박용우⁸⁸

△박장우⁶⁶ △박재원⁵⁵ △박종국⁶⁵
△박철희⁹² △박태호⁶⁷ △박희수⁷⁰
△백낙륜⁵¹ △백덕렬⁶⁷ △백보윤⁶¹
△변광호⁸⁴ △변재승⁶⁰ △봉종현⁵⁷
△사부성⁶¹ △서범수⁹³ △석광세⁵⁹
△석성환⁵⁴ △손진호⁸⁷ △송경숙⁹¹
△송기영⁶⁹ △송민호⁹⁷ △송세빈⁸¹
△송진현⁷¹ △신광렬⁸⁴ △신근식⁶³
△신동민⁹⁹ △신수길⁷⁷ △신영민⁷⁵
△신일규⁶⁹ △신창동⁴⁷ △신학근⁶²
△심상명⁶⁰ △안병익⁸⁸ △안세준⁹⁹
△안영수⁸⁴ △안재식⁵⁷ △양승찬⁷⁰
△양영태⁵⁷ △오재선⁶¹ △오치룡⁶⁵
△유석원⁸² △유순석⁵⁷ △유재신⁴⁸
△유정석⁶⁶ △유준형⁵¹ △유해돈⁵⁵
△윤신승⁸⁸ △윤재승⁸¹ △윤한중⁶⁴
△이강명⁶⁴ △이관영⁵⁷ △이광형⁸⁰
△이교립⁷³ △이교선⁵⁵ △이기택⁷⁸
△이대영⁶⁷ △이동원⁹⁰ △이명순⁸⁵
△이미희⁰⁰ △이상기⁵⁹ △이상철⁷⁹
△이선애⁸⁵ △이순복⁵⁴ △이승주⁰⁵
△이승한⁵⁵ △이양순⁵⁵ △이영의⁵⁹
△이영희⁶¹ △이용남⁵⁹ △이인호⁵⁴
△이정민⁹³ △이제관⁸³ △이종주⁸⁵
△이종환⁵⁹ △이준상⁸⁵ △이진수⁰⁰
△이춘삼⁶⁷ △이형섭⁹⁴ △임승환⁶⁷
△임장원⁶⁴ △임한흠⁷³ △장 호⁶⁷
△전용희⁸¹ △정경택⁷⁰ △정기돈⁷⁸
△정영일⁷³ △정용달⁸¹ △정일만⁷²
△정점식⁸⁴ △정진우⁴⁸ △정태용⁹⁵
△정호건⁸² △조기현⁵¹ △조봉균⁵⁸
△조성제⁸⁵ △조신형⁹⁰ △조영동⁵⁷
△조용석⁵³ △조주순⁶¹ △조주현⁹⁵
△주영훈⁵⁹ △천경송⁵⁷ △최경자⁰¹
△최귀인⁵⁶ △최기선⁶⁴ △최성배⁸⁸
△최춘기⁵⁷ △추영일⁶¹ △한 경⁷⁹
△한연수⁹⁵ △한용기⁶² △한재영⁹⁴
△한주상⁶³ △홍일표⁶³ △홍주관⁶⁶
△홍중표⁷⁷ △황경진⁵² △황운영⁵⁵
△황윤주⁵² △황재택⁵² △황정열⁸⁵
△황활웅⁶⁷
◆사대 △강양희⁵⁷ △강한필⁵⁹
△강현재⁷² △고준식⁵¹ △구사용⁵¹
△권정순⁵⁹ △권혁봉⁴⁹ △금승호⁶⁰
△김경자⁶³ △김광준⁶⁷ △김동한⁵⁷
△김병국⁵⁶ △김병수⁵⁹ △김병식⁸¹
△김봉민⁵³ △김성곤⁴⁹ △김소연⁸⁵

△김영심⁸² △김윤정⁰² △김재성⁷⁹
△김재은⁵⁰ △김재현⁷⁵ △김점술⁸²
△김종석⁵⁵ △김종우⁵⁴ △김주영⁸⁶
△김준환⁶¹ △김창환⁷⁸ △김현진⁹¹
△김혜우⁶⁴ △나일남⁷³ △남기종⁵⁴
△남한식⁵¹ △류경숙⁷⁹ △류은선⁸⁷
△문하영⁰⁴ △민영문⁷⁷ △민용기⁵²
△민청옥⁴¹ △민혜식⁵² △박경돈⁷⁵
△박경민⁹⁸ △박상필⁷⁶ △박영덕⁴⁹
△박영배⁵⁴ △박인식⁴⁸ △박정남⁵⁷
△박종삼⁵⁹ △박종서⁵⁷ △박종식⁵⁴
△박종식⁷⁴ △박종현⁷⁰ △박주영⁰⁴
△박주해⁵⁰ △박지숙⁰⁴ △박지현⁰²
△박창만⁶⁵ △박태화⁵² △박희용⁶⁵
△변희준⁵⁸ △봉정모⁷² △석경징⁶⁰
△손영운⁸² △송동수⁶⁷ △송복주⁵³
△송재식⁴⁹ △신동로⁶⁶ △신동진⁰³
△신상철⁵⁵ △신승기⁸³ △신용국⁵⁵
△신일윤⁶⁶ △안영숙⁵² △안정훈⁹⁹
△안종환⁵⁵ △연대성⁶⁰ △오건우⁸¹
△오수량⁶² △오진경³⁸ △오창훈⁸³
△우인섭⁴⁷ △유성수⁷⁴ △윤상필⁶⁴
△윤영준⁸⁴ △윤희옥⁶⁰ △윤희태⁹⁹
△이강법⁵⁷ △이기종⁵⁶ △이기충⁵⁵
△이길오⁷³ △이대규⁵⁷ △이동욱⁶⁹
△이병무⁵² △이병선⁵¹ △이상두⁰⁰
△이상석⁵⁹ △이석주⁶⁰ △이성구⁶⁴
△이성규⁵⁷ △이수찬⁵⁶ △이영호⁵⁰
△이왕근⁶⁶ △이용현⁵³ △이인기⁸¹
△이재민⁷⁹ △이재선⁰¹ △이정이⁰⁴
△이정태⁷⁰ △이존희⁵⁷ △이종명⁵⁴
△이종희⁴⁰ △이준형⁷⁷ △이채규⁶⁶
△이현택⁵³ △이혜성⁷⁶ △임상규⁵⁴
△장선식⁵⁹ △장재흥⁵⁵ △장춘화⁸³
△장혜정⁰¹ △전명수⁵¹ △전수남⁵⁹
△정구욱⁴⁹ △정상호⁶⁷ △정연경⁰⁴
△정연순⁶¹ △정영수⁸⁴ △정우상⁵³
△정운근⁷¹ △정정권⁶⁷ △정하경⁸⁰
△조경오⁷⁵ △조민식⁵⁵ △조정제⁵³
△조주현⁰⁴ △주운수⁶⁶ △진쾌현⁵⁶
△차도완⁵⁵ △최계숙⁵² △최병호⁵⁷
△최순정⁰⁴ △최승호⁰⁴ △최승환⁵⁶
△최영춘⁵⁷ △최익규⁵⁰ △최정림⁶²
△최정숙⁴⁴ △최정현⁶⁴ △한 민⁰³
△한함운⁵³ △현재복⁵⁶ △홍은경⁵⁴
△홍정희⁵⁵ △홍종봉⁵⁴
◆상대 △강 욱⁵⁶ △강기호⁶⁸

△강좌희⁵⁵ △권영진⁵⁸ △김 현⁴⁸
△김경렬⁵³ △김규석⁵⁵ △김덕윤⁶⁵
△김동수⁵⁴ △김방지⁵⁶ △김범수⁵⁷
△김봉한⁴⁴ △김상경⁶¹ △김상희⁶⁹
△김선길⁴⁵ △김선태⁶² △김성주⁵⁵
△김송자⁵⁹ △김승경⁵⁵ △김시왕⁵⁷
△김영근⁶⁴ △김용성⁵⁷ △김용수⁵⁶
△김용술⁵⁶ △김웅렬⁴⁹ △김종현⁵⁵
△김주복⁵⁷ △김진주⁶⁰ △김창수⁶³
△김한오⁵³ △김홍배⁶³ △민병훈⁵⁶
△박경수⁵⁹ △박광규⁵⁶ △박광철⁵⁶
△박대룡⁵⁰ △박동순⁵⁷ △박봉흠⁶⁸
△박좌용⁴⁸ △박홍서⁴⁹ △배갑순⁴⁸
△배기수⁶¹ △변원옥⁴⁹ △변형윤⁴⁵
△서돈윤⁵⁸ △설 유⁶⁴ △설동욱⁶²
△성기호⁵⁹ △소재수⁵⁷ △손명환⁶¹
△손성철⁵⁰ △손홍규⁵¹ △송정위⁶⁰
△신중현⁵⁶ △심문섭⁵⁴ △심형섭⁵⁷
△안기봉⁵⁵ △안영목⁵⁷ △안희중⁵⁹
△양만기⁶⁴ △오길영⁴² △오우현⁵⁵
△오정환⁵⁴ △오정현⁵⁴ △우일균⁵⁰
△원한영⁵⁶ △위봉택⁶² △유근성⁶⁶
△유방창⁶¹ △윤승두⁴³ △윤정희⁵⁴
△윤지원⁵⁹ △이경모⁵² △이규찬⁵⁵
△이길호⁵⁵ △이상범⁷¹ △이상연⁵⁹
△이석순⁵⁴ △이성재⁵³ △이세장⁵⁵
△이승균⁵⁵ △이연수⁶⁴ △이영세⁴⁴
△이영일⁶⁰ △이영철⁶⁸ △이윤달⁶²
△이은방⁵⁷ △이재등⁵⁷ △이종수⁶⁴
△이창희⁵⁵ △이춘원⁶⁷ △인수환⁵⁴
△임정일⁶² △임한석⁵⁹ △장기욱⁵²
△장태익⁶⁶ △전인홍⁵⁴ △전창기⁵⁷
△정경원⁵⁵ △정상진⁴⁹ △정인목⁴⁸
△정정숙⁴⁸ △정종식⁶⁹ △정형진⁵⁷
△조동희⁵⁵ △조문제⁵⁹ △조삼국⁶⁰
△조성진⁵⁵ △조은구⁵⁴ △조현문⁵⁸
△조흠원⁶⁴ △채규원⁵¹ △최대환⁶⁰
△최병완⁵⁷ △최종원⁵⁵ △최처락⁵⁴
△최택만⁵⁹ △추준석⁶⁷ △한상현⁴⁵
△한영국⁵⁰ △허 석⁵⁹ △허재경⁵⁶
△황금학⁶⁰ △황보연⁵⁵
◆생활대 △김윤정⁹³ △안은정⁰³
△이충민⁹⁶ △김경숙⁸² △김경애⁷⁰
△김옥련⁵⁸ △김혜경⁷⁷ △신소림⁸⁵
△오명숙⁷⁰ △이강이⁸⁵ △임인순⁵⁸
△임정빈⁶¹ △전영숙⁷⁸ △채미희⁷⁷
△한영숙⁵⁶

◆수의대 △강석주⁵⁵ △고의식⁵⁶
△권순호⁵³ △김세훈⁹⁷ △김영목⁵¹
△김영무⁶⁰ △김재하⁵² △김종건⁶⁵
△김형석⁹⁷ △남궁선⁵⁷ △남호성⁷⁸
△노병의⁶¹ △박기환⁴⁹ △박내정⁶³
△박만규⁵⁰ △박양기⁵⁶ △박춘강⁷⁷
△백영환⁵⁶ △성환우⁸² △송기홍⁶¹
△신광순⁵² △신현덕⁸⁰ △안수경⁰⁰
△안정모⁷³ △유희만⁷¹ △윤영원⁶³
△윤태결⁵⁸ △이우영⁵⁹ △이인섭⁷¹
△이정탁⁴⁵ △이정학⁸⁰ △이중희⁴⁹
△임연식⁷⁴ △임정수⁶⁴ △정윤섭⁵⁵
△정지영⁸⁴ △정진화⁵² △지성학⁵⁷
△최광수⁵⁸ △최지훈⁰⁴ △홍순국⁵⁴
△황선영⁰¹
◆약대 △강석훈⁰⁴ △강순철⁵⁹
△곽교정⁰¹ △김국렬⁷⁶ △김규형⁵³
△김기현⁵² △김아영⁰⁷ △김원보⁵³
△김장숙⁵⁸ △김종국⁶² △김현옥⁵⁷
△김해자⁵⁵ △김홍중⁵³ △김홍집⁵⁷
△김희중⁵⁹ △나종천⁸² △박기숙⁸⁶
△박병호⁵³ △박상일⁷⁶ △박성영⁷⁰
△박성원⁹³ △배은상⁵⁶ △백덕우⁵³
△백윤승⁴⁶ △변은자⁵¹ △송승희⁹⁹
△이강영⁵⁷ △이만재⁵⁶ △이석구⁶²
△이승현⁰⁵ △이영남⁶⁴ △이원재⁵³
△이유경⁰⁰ △이일영⁵⁶ △이재영⁰⁴
△이정석⁷⁵ △이해빈⁵⁸ △전정숙⁵⁷
△정동원⁵³ △정진남⁶⁰ △조미정⁸⁷
△최수일⁶⁵ △한정연⁸⁵ △홍순억⁵⁸
△황환상⁵³
◆음대 △강상미⁹⁸ △강형은⁰²
△김경화⁷³ △김명희⁶⁴ △김성국⁶⁷
△김성희⁷⁵ △김소연⁹⁴ △김수혜⁶⁶
△김순애⁵¹ △김예슬⁰⁵ △김용배⁰⁰
△김홍박⁰⁰ △나유선⁰² △문명자⁶³
△민미란⁷³ △박명춘⁷⁶ △박석철⁷³
△배은숙⁷⁶ △서계순⁶³ △서유석⁸⁹
△신혜주⁷⁶ △안성준⁶⁵ △양은희⁷¹
△오미혜⁷¹ △오양구⁶⁴ △유새롬⁰⁴
△유은숙⁹³ △이경주⁷⁸ △이민나⁰⁰
△이신희⁷⁰ △이영민⁰¹ △이운영⁵⁷
△이은미⁰⁴ △이태윤⁰⁰ △이해식⁶⁶
△장창환⁵⁸ △장형원⁷⁵ △정선희⁰⁰
△정은희⁸⁷ △정혜경⁰⁰ △조길자⁶²
△주진서⁰³ △추승옥⁶⁸ △함천혜⁶²
△황수아⁹⁸ △황순빈⁹⁵ △황영기⁸²

◆의대 △강내열⁵⁶ △강성섭⁶⁶
△강정후⁷⁶ △강진국⁶⁷ △강진화⁸⁰
△강홍모⁷⁰ △권영길⁴⁷ △김관엽⁵³
△김기진⁴⁷ △김길중⁰⁶ △김남호⁷⁴
△김득구⁵⁰ △김용식⁷¹ △김우영⁴³
△김재성⁷⁹ △김중환⁴³ △김현경⁹⁹
△김희섭⁴⁶ △남궁건⁶⁷ △노 민⁸⁴
△문상은⁸⁰ △문채구⁵³ △민범준⁰⁴
△박명희⁶⁷ △박성근⁸⁹ △박순일⁵¹
△박신근⁶¹ △방장훈⁶⁸ △백광수⁷⁴
△서창석⁷⁹ △송인배⁷³ △신용찬⁵⁴
△양세원⁷⁸ △양원용⁶⁹ △오세윤⁵⁹
△유영해⁴⁸ △유형록⁵⁷ △윤병란⁷⁹
△윤용구⁶⁶ △윤용수⁶⁵ △이경욱⁵⁸
△이규호⁰³ △이동명⁷³ △이명근⁵⁸
△이명호⁸⁰ △이성준⁵⁵ △이수동⁶⁸
△이언복⁵² △이중환⁵¹ △이현구⁷⁴
△이희발⁵⁹ △임윤명⁶² △정상일⁸⁸
△정연철⁸⁵ △정진우⁴⁵ △정항보⁸¹
△정해관⁷⁶ △정형배⁷⁸ △주권량⁷⁶
△주영수⁸⁴ △주원식⁷⁶ △진정욱⁹³
△차왕보⁵³ △최병휘⁷³ △최영호⁸⁶
△최용석⁸² △한승석⁰¹ △한중수⁰²
△허 훈⁴⁶ △현정현⁰⁵ △홍병수⁹⁴
◆치대 △강신규⁶⁵ △강우태⁶⁰
△강정규⁵⁸ △고미나⁰³ △김규진⁸¹
△김기달⁷⁴ △김기흥⁷⁵ △김명득⁵⁹
△김명원⁵⁰ △김문형⁶⁰ △김상세⁶⁰
△김선일⁵⁸ △김영권⁵⁵ △김영수⁵⁷
△김유진⁶⁸ △김윤이⁷³ △김종택⁵⁸
△김종화⁹⁹ △김진홍⁷⁸ △김현덕⁷⁶
△김화봉⁷⁷ △김효순⁶⁸ △노철진⁵⁴
△목길수⁷³ △박동귀⁵⁵ △박연천⁷²
△박용한⁷⁸ △박홍규⁷¹ △백정화⁸⁶
△서상주⁵⁶ △서성구⁷⁴ △설창환⁶⁷
△성철제⁶³ △손영경⁸⁶ △손재도⁹⁰
△안석준⁸⁹ △여인표⁰⁰ △염경철⁶¹
△오안민⁶⁰ △용호택⁶⁷ △윤봉운⁷⁹
△이미대⁶³ △이상봉⁵³ △이승종⁶⁹
△이완수⁵³ △이점식⁶¹ △이철용⁷¹
△이현석⁸² △임성균⁵⁹ △장동재⁷⁹
△전혜립⁸⁵ △전혜선⁰⁰ △정 청⁶⁷
△정영한⁷² △정윤석⁷³ △정인환⁶⁰
△조광현⁷⁰ △조상래⁸³ △조일제⁷⁷
△조호준⁵³ △주광섭⁷³ △한보균⁶⁹
△한성희⁹⁴ △함병도⁷⁵ △현기용⁷⁷
△홍성익⁵⁴ △홍순룡⁵⁸ △홍정임⁸⁷

◆대학원 △고영일⁸⁴ △고진석⁹⁹
△김경남⁸⁴ △김기혁⁸⁵ △김병주⁸⁵
△김우식⁶⁶ △김철수⁷³ △남홍우⁶¹
△박용현⁹² △송현장⁸⁷ △안무혁⁶²
△염시창⁸³ △윤민재⁹⁰ △이정승⁸⁸
△임채열⁹³ △전수진⁰¹ △정병희⁵²
△정성렬⁸⁵ △주양자⁶⁶ △최문순⁸⁴
△최수현⁸⁴ △함성일⁰² △황철용⁹⁶
◆경대원 △강희경⁷¹ △고창석⁷¹
△구지일⁹³ △김용범⁷¹ △임인규⁸⁸
◆교대원 △우정남⁷³ △이상길⁷⁰
△정병관⁶⁹ △정월용⁷³
◆보대원 △권영호⁷¹ △김대규⁶⁴
△김영웅⁷⁵ △김종민⁶² △김좌상⁶⁰
△김진순⁷⁶ △김학기⁷⁶ △김한숙⁰³
△김홍은⁷⁶ △박덕성⁷⁵ △박상욱⁰⁴
△박정숙⁰³ △박주홍⁸⁶ △신학균⁶⁰
△여현태⁶⁵ △오세민⁶⁷ △오수진⁰²
△이송권⁷¹ △이양재⁶¹ △한경희⁰³
◆사대원 △김영준⁷⁰
◆행대원 △강민정⁰⁶ △강인준⁷¹
△김덕중⁸² △김동호⁶⁸ △김재윤⁸³
△김한곤⁷¹ △남광수⁷⁹ △박민우⁸⁶
△서만근⁸⁸ △이권철⁰¹ △이기선⁸⁴
△이성기⁶³ △채희성⁷¹ △허성두⁷¹
△홍석철⁶⁴
◆현대원 △강은순⁷⁴ △김재도⁸¹
△박유정⁹⁰ △신언교⁸⁷ △이태수⁷⁴
△허 완⁷⁴
◆AMP △강신욱⁵⁰ △강은채⁴⁴
△강중현²⁶ △고정웅⁴⁰ △곽병구¹⁷
△구자정²³ △구종태⁴⁵ △권병식²⁸
△권혁중⁵ △김 반⁴⁶ △김경환³¹
△김광수⁴⁵ △김기열³⁰ △김동구³⁵
△김명립⁶⁴ △김배호⁵² △김병오³⁶
△김병윤⁹ △김선홍¹⁴ △김성환²⁵
△김용수¹⁵ △김정환¹⁵ △김재수³⁴
△김준화¹⁸ △김진배⁵⁷ △김희오²⁹
△나익수³⁸ △노재근⁴² △노재천³
△문정국³¹ △문창모⁶¹ △민명술⁴²
△민영복⁴² △박 석²⁵ △박관규¹⁷
△박달용⁴ △박영대¹ △박은현⁵¹
△박인석⁵³ △박재근⁶⁴ △박종철⁵⁴
△박철홍⁵¹ △백영기³ △변정수⁴⁰
△서재식⁶² △성영창²⁶ △신승훈⁴⁷
△심갑보³ △심인홍⁴⁶ △양종민⁴⁴
△오동빈²² △우영태⁴⁰ △유부웅⁴⁶

△유상욱³⁹ △유시종¹⁹ △유한섭²³
△윤동균⁴⁶ △윤성민¹³ △이강호⁶⁰
△이국노⁶¹ △이방수³⁷ △이성연⁴
△이순구⁶³ △이영숙¹³ △이원호⁴³
△이장국⁴² △이재환⁴⁸ △이종철¹⁰
△이진선³⁶ △장남진⁴⁸ △장대수⁶³
△장활수¹³ △전기철⁵³ △전동근¹¹
△정공식⁶³ △정귀열⁵⁹ △정도연²⁸
△정동락⁵² △정용근⁴⁵ △정원민¹³
△정일기³⁵ △정재성⁷ △정하원⁶⁰
△조용연²¹ △조창구⁷ △진홍균⁹
△차정의⁴⁴ △채갑병⁵³ △천병섭¹⁰
△최기덕¹⁴ △최대업³¹ △최오갑²⁹
△최종욱¹⁵ △최종원¹⁶ △한 유³⁰
△한종희²⁸ △한지훈⁵⁴ △함세영¹²
△황규현⁴⁴
◆AIP △구항욱³⁷ △김경원¹⁴
△김광철³⁴ △김익모²³ △김장근¹⁵
△김창희¹⁹ △김해선²⁶ △남기정³⁵
△박영욱¹⁵ △박인서¹² △박종호⁹
△북진성³⁵ △서영복¹⁹ △송세현³¹
△신강준³⁸ △신현필¹³ △오 현⁵
△오태호³³ △윤재일³⁶ △이강기³⁷
△이강덕¹⁷ △이문기¹⁶ △이육수¹⁵
△이창범²² △이창섭²⁹ △이태화¹⁶
△임처일¹⁸ △장철호²² △장희전²⁰
△정주용³⁷ △조병오¹⁷ △조병제³³
△조종제¹⁴ △조태웅¹⁸ △지경택⁴
△차정웅¹⁸ △최순규³⁶ △최원태²⁶
△황기인¹⁰
◆ACAD △가검노³⁹ △공운현⁴⁷
△권영진⁴² △김광철⁴⁷ △김동일⁴²
△김승영⁴³ △김연수¹⁶ △김인종⁵⁴
△김종식⁶⁰ △김형복²⁷ △김희곤⁵⁵
△남종우³⁰ △노정기³⁶ △류근환¹³
△문동신⁵⁵ △박상규⁴² △송선근⁴⁹
△신상훈⁴⁷ △신정수¹² △심영철⁵⁹
△안인순⁵⁵ △여익구⁵⁹ △유낙준⁴⁵
△유병국³⁰ △유재필²³ △이경우³⁷
△이래철⁵⁴ △이법창²⁹ △이상철³³
△이영숙¹⁷ △이영희⁵⁷ △이은홍⁴⁸
△이재복²¹ △이치윤⁵⁷ △이필우³³
△임충규⁴⁵ △전해성³³ △정진문⁶⁵
△지태욱²⁰ △최상철³⁶ △최익한⁵
◆ABP △광광희¹⁸ △구태균⁷
△권금자²³ △류광하⁷ △박대영³⁰
△박영기²⁵ △서갑석⁶ △심상렬²³

△심형보¹⁶ △이강우²³ △이근중⁸
△이수연²³ △이수현⁸ △이용범²⁸
△임필수²² △정환수¹⁵ △조도천²⁵
△황종보²⁷
◆SGS △김기영²² △김영결¹⁶
△김태호²¹ △남미정¹⁷ △송두영²²
△유금중³ △이종호¹⁶ △이창복¹³
△이항구⁸ △장태복⁴ △전우대²
△정종협¹⁸ △조용기¹⁹ △조익희²⁰
△최병진²⁰ △최상현²⁰ △황정식²
◆CHCN △김항숙¹⁰ △문순자¹¹
◆APC △안병철⁵ △양화승⁸
△이영세⁴ △이우진⁴
◆HPM △권부옥¹ △김남수¹⁴
△김흥구¹² △박제상¹⁴ △배영봉¹⁴
△유환교²² △이영완¹ △이정현⁹
△임일규¹ △장주완¹⁷ △전명덕¹
△전영숙⁵ △정지형⁵ △최낙원¹⁶
△한상섭¹² △한훈섭¹⁰ △홍의표⁹
◆AMPP △김상욱⁷ △김상운⁸
△방석관¹ △양은희⁷ △엄재구⁶
△이상철⁵ △정대길⁷ △최인규²
◆AIC △구자영¹⁰ △김인기²
△김형태¹⁶ △동상태¹⁰ △민홍식²³
△박영출²⁰ △박태규⁵ △배용철²⁰
△백남근⁴ △이기주⁶ △이민석²⁴
△이현태²¹ △이희훈¹ △임진환⁷
△정용주⁴ △정장환¹¹ △정하황²²
◆AFB △권관주⁸ △김경원⁸
△김숙희⁷ △김용식⁷ △김재명⁷
△김재연⁸ △김지미⁷ △민선기⁷
△백귀열⁸ △안순율⁸ △양호석⁸
△우창식⁷ △유광호⁸ △이용환⁷
△이정록⁸ △장세영⁸ △정재민⁵
△최혁재⁴ △한길수⁸
◆AMPFRI △강태호²² △구본건¹
△권 순⁴ △권숙태²⁰ △권혁원²²
△김돈형¹⁰ △김병문¹⁷ △김복엽²³
△김양자¹³ △김일동⁸ △김정주²
△김정훈¹ △류영진²² △박재호²³
△박진태² △배명섭⁹ △백두철⁹
△서재용²² △양동수⁶ △원범희¹⁴
△유영기²³ △이규태¹⁴ △이기숙²¹
△이미숙²⁴ △이종무¹¹ △이춘희⁹
△임한택⁶ △장석철⁵ △전영일²
△정내영¹⁰ △정운길¹ △정지택³
△지일산²² △진형규²⁴ △한정기¹

△홍성일²⁴
◆ACPMP △구본출⁵ △김구열⁴
△김성규⁴ △김용각¹ △김종흥⁴
△김창환⁵ △민평기⁴ △박상남³
△신성욱⁵ △심형구⁴ △이동엽¹
△이용주⁵ △정규순³ △정운택⁵
△정종균² △최재영² △한승구⁴
◆FIP △김종준² △민용준¹
△박지관¹ △양태운⁴
◆GLP △강미모¹⁶ △곽기형¹⁷
△권 증¹⁶ △권갑현¹⁸ △김규영¹⁸
△김병두¹² △김병윤¹⁶ △김연식¹⁷
△김종필¹⁶ △김춘우¹⁸ △김형일¹⁷
△박희수¹⁵ △박희순¹² △송원근¹⁵
△신동욱⁹ △심상운¹⁴ △연건희⁴
△유충근¹⁷ △유형숙¹⁵ △이동향⁹
△이성목¹⁷ △이승구¹⁵ △이용문¹⁷
△이정우¹³ △이종혁¹⁶ △이준형⁵
△이호순¹³ △정연택¹⁰ △정용기¹⁴
△정인태¹¹ △정재욱¹⁴ △정해연¹⁷
△조기동¹⁷ △차상복³ △차화철¹²
△최만중¹² △허정순¹⁴
◆ALP △강재만⁸ △권영찬⁴
△길기봉² △김광주² △김기식⁵
△김요성⁸ △김홍주⁴ △민보영⁹
△박인규¹ △박진현⁶ △박찬일⁷
△박찬재⁷ △백진현⁷ △부봉훈²
△서일성⁶ △손용근⁶ △신영숙⁸
△윤문수³ △이근영⁹ △이상길⁹
△이재수⁸ △임대진⁵ △차원진³
△황인욱⁴
◆ANMP △백현숙⁵ △변금순⁵
△이인희³
◆SPARC △구재홍⁹ △김 건⁸
△김유경² △김태곤⁶ △박상하¹³
△오준서⁴ △윤상기¹ △이 선⁹
△이덕록⁷ △이성영⁵ △장재진²
△전계조¹⁰ △정무신⁵ △정운호⁹
△정재원⁵ △조혜자¹³ △황보석¹
◆AFP △최동수²

5 월 계 : 37,380,000원
평생회비 : 47,640,000원
입 회 비 : 1,480,000원
총 계 : 684,960,000원